

대입시기 대학 및 전공지향 선택이 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

이왕원¹⁾ · 최지은²⁾ · 최 율³⁾

요약

본 연구는 (대입 시기) 개인들이 지녔던 '대학-전공'에 대한 선택이 이후 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효과를 탐구한다. 특히 본 연구진은 '대학과 전공'의 선택 이면에 존재하는 한국사회의 수직적 학력주의 및 특정학과 편향 구조의 영향에 주목한다. 대학과 인기학과의 서열구조가 일원화된 한국사회에서는 대학-전공 사이의 선택은 동일한 점수를 지닌 학생에게 역의 관계에 있다. 이때 '(비인기학과)대학우선' 선택은 '전공우선' 선택보다 대학위계 상으로는 다소 높다. 따라서 개인들은 자신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한두 급간 높은 대학서열/위계를 확보하는 '학력주의구조'에 기초한 구조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또는 다소 대학위계는 낮을지라도 노동시장 진입에 유리한 공학/상경계열을 택하는 '학과편향구조'를 통해서도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한편 노동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관심사와 흥미에 기초한 전공을 우선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학과 전공을 동시 고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해당 선택들이 가구배경, 지역, 사회문화 등 복합적인 이해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며, 개인의 생애 전반, 그리고 대학교육의 본질적 의미와 깊은 연관을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학-전공 선택이 지니는 학력주의와 학과선호라는 구조적 의미에 대한 이론적 흐름을 살펴보고, 이후 경쟁위험모형을 통해 해당 선택이 노동시장진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본다.

I. 서론

한국사회는 강력한 수직적 학력주의 및 학벌구조에 기초한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대학 학력은 사회적으로 인정된 상징지위이자 인적자본으로서 이후 노동시장 및 사회적 성취를 결정짓는 핵심요인이 된다. 교육성취의 중요성은 교육계층화와 불평등을 연구하는 다양한 교육사회학 연구들에서는 물론이고, 인적자본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노동경제학 연구들에서 거듭 확인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사회에서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전반이 20대 초반에 획득한 출신대학 학력에 의해 크게 영향 받고 있음을 지적한다(방하남 · 김기현, 2002; 남춘호, 2003; 김경근, 2005; 손준중, 2004; 2006; 백병부 · 김경근, 2007; 이경희 ·

1)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sanha22c@naver.com), 주저자

2)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wldsm370@naver.com)

3) 한양대학교 SSK 다문화사업단 전임연구원(cyool@gmail.com), 교신저자

김태일, 2007; 채창균·김태기, 2009; 이왕원, 2014; 오호영, 2007; 2015).

한국사회에서 대졸자들의 교육성취에 따른 보상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위계적인 학벌 구조에 따라 어떤 대학을 졸업했는지에 따른 차이이다. 한국사회에서 학력/학벌은 개인들의 적성과 능력을 보장하는 강력한 신호(signal)이자, 자격(credit)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Spence, 1974; Weiss, 1995; 이해영, 1995; 이진만, 2007; 오호영, 2015). 두 번째는 노동시장 진입 및 성취에 대한 계열 및 전공학과와 차별적인 효과이다. 대학이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상황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에서는 학과에 따른 차별적인 노동시장 성과를 보고해왔다(김정숙, 2009; 신동균·김미란, 2009; 이자형·연보라, 2012; 오호영, 2015). 이는 학벌구조 뿐만 아니라 전공계열, 학과가 개인들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임을 지적한다.

대학위계나 전공의 중요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집중한다. 첫 번째는 대학 진입 이전에 일어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이다. 특히, 개인의 가족배경이 최종 학력이나 대학위계, 전공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중등교육의 계열화(tracking) 효과가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등에 집중한다(박소영·민병철, 2009; 김성식, 2009; 변수용·황여정·김경근, 2012; 김준엽·김경근·한송이, 2013; 이왕원, 2014; 윤수경 외, 2015; 박현준·이자형·김경근, 2015), 두 번째는 교육성취가 실제 노동시장의 성과로 나타나는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들이다. 이때 교육성취는 대학위계나 전공, 또는 대학과정에서 추가되는 인적자본들의 노동시장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다(이규용·김용현, 2003; 황여정·백병부, 2008; 채창균·김태기, 2009; 김미란·민주홍, 2011; 이병희, 2011; 이자형·연보라, 2012; 김동규, 2013).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학교육 성취를 대학교육 이전의 구조적 차이에 따른 결과이거나, 또는 노동시장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구조적 원인으로 파악할 뿐, 실제 대학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일어나는 개인들의 선택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 보통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의 이행과정은 내신 성적이나 수학능력시험과 같은 객관적 척도를 통해 결정되며, 이것은 현대사회 교육체계의 핵심적 가치라 할 수 있는 능력주의에(Meritocracy) 기반 한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는 어느 대학을 갈 것인지, 또는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선택의 과정이 수반된다. 본인이 원하는 대학과 전공을 동시에 충족하는 선택이 개인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결과라 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개인은 본인의 희망과 객관적 가능성에서 타협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전공학과는 시대적 맥락에 따라 일관된 경향(가령, 상경계, 이공계, 사범대 등)을 보인다는 점에서(이자형·연보라, 2012; 김기현·오병돈, 2013; 오호영, 2015), 해당 선호학과들은 경쟁이 더욱 심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수능)점수를 지닌 학생에게 학벌과 전공의 선택은 보통 역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개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 또는 전공을 포기하고 좀 더 나은 대학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또한 전공 선택의 과정에서는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전공을 지향하는 경우와 자신의 관심사와는 상관없이 노동시장에서 각광받는 소수의 전공들을 지향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즉,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이행과정 속에는 한국사회의 학벌구조, 전공별 노동시장의 가

치, 그리고 개인의 적성과 관심 같은 다면적인 요소들이 고려 대상이 되며, 개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본 연구는 20세를 전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개인들의 선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표를 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택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대학지향적 선택, 두 번째는 전공지향-취업유리학과 선택, 세 번째는 전공지향-취업불리학과 선택, 그리고 네 번째는 학벌과 전공을 모두 고려하는 동시지향적 선택이다. 각 선택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우선 ‘대학지향적’ 선택은 위계적 대학 서열에 따른 사회적 보상을 기대하는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전공지향적-취업유리학과’ 선택의 경우는 학벌보다는 노동시장에서 유용한 전공을 선택함으로써 교육성취의 보상을 극대화 하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전공지향적-취업 불리학과’ 선택의 경우는 개인의 흥미나 적성에 기초한 것으로 하고 싶은 일 또는 공부라는 개인적 보상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전공지향적선택-취업유리학과’ 역시 개인의 흥미나 적성에 기반해 선택한 경우도 존재하겠지만, 후자에 비해서는 노동시장을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을 한 경우가 흔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시지향적 선택의 경우 학벌과 전공이라는 두 가지 보상의 구조들을 동시에 고려하고 일종의 타협, 혹은 균형을 맞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의 선택이 노동시장 그리고 사회구조와 면밀히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즉, 학력주의가 팽배한 한국사회에서 대학과 전공에 대한 선택은 “노동시장과 사회구조적 특성을 인지/해석 한 개인들의 사회적 선택”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선택에는 개인들의 가구배경과 성장지역 등 계층적 배경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동할 확률이 높다(윤수경 외, 2015; 박현준·이자형·김경근, 2015). 이는 네 가지 유형의 선택이 청소년과 성인의 경계에 있는 대입시기의 개인들에 의한 주체적인 선택 이라기보다는 이들의 부모가 해석하는 사회구조와 노동시장의 기회에 대한 판단이 개인들의 최종적인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결과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일어나는 개인들의 선택의 순간은 한국사회의 노동시장과 대학구조에 대한 개인/가구의 해석과 전략이 표출되는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네 가지로 유형화된 개인들의 선택은 한국사회의 대학교육이 가지는 의미를 보여주기도 한다. 대학교육의 본질적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또 다른 논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보여 지는 선택의 유형들은 지나치게 노동시장의 결과를 염두에 둔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편향된 선택의 가능성들은, 흥미-전공-노동시장의 관계에서 불일치(mismatch) 또는 단절(disconnection)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개인들이 대학에 와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없는 ‘흥미-전공불일치’의 문제를 야기한다. 반대로, 개인들의 적성을 맞춘 진학의 경우 자신이 대학에서 배운 전공을 노동시장 진입 이후 활용할 수 없는 ‘전공-직무불일치’의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다. 학벌과 전공으로 이루어진 대학인력 구조와 노동시장에서의 편향된 인력수요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불일치가 실제 대학교육의 가지는 의미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적성과 상관없는 대학공부와 취업의 결과는 노동생산

성의 저하와 낮은 직무만족도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집합적인 결과는 한국사회의 성장 가능성을 잠식하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진은 4년제 대학생들이 대입 시 지녔던 ‘대학-전공’에 대한 지향과 선택이 이후 노동시장 진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려 한다. 이러한 연구 주제는 학력/학벌과 전공이라는 두 가지 보상의 구조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대학선택에 작동하는 개인의 적성과 노동시장의 보상이라는 대립적인 선택구도가 야기하는 실제적인 효과를 확인해 보려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Employment Panel, 이하 KEEP) 1차(2004)조사부터 11차(2014)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이때 노동시장 진입의 성과는 첫 취업 여부와 이행 기간, 그리고 첫 취업의 질적 특성을 반영하여 콕스 회귀분석 및 경쟁위험모형을 활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입 시기의 선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세 가지 요소로 잠재적으로 파악한다. 첫 번째는 본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 질문인 선택에 따라 구성되는 대학위계와 전공의 조합에 따른 구조적 차이이다. 두 번째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 배경 및 동기의 차이에 따른 선택편의(selection)가 존재할 수 있다. 즉, 가족배경이나 개인들의 동기는 학벌-전공 지향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입학 시기부터 취업까지의 기간 동안 추가적인 인적자본의 성취에 따른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선택편의에 따른 구성원들의 차이일 수도 있으며, 또는 각각의 대학과 전공들이 가지는 제도적 차이에(School as institution)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기존의 O.E.D(Origin, Education, Destination)의 계층화 모형을 변용하여 ‘대학-전공’ 선택 이전에 선행하는 가정배경과 후행하는 대학교육의 효과를 통제하였고, 이들을 순차적으로 모델에 포함하여 대학-전공 선택의 효과 변화를 추정하였다. 더 나아가 결론부분에서는 첫 취업의 직무만족도를 또 다른 종속변수로 분석함으로써 선택에 따른 주관적인 효과를 탐색해본다.

II. 이론적 논의

1. 한국의 학력주의와 노동시장 이행의 관계

한국사회가 강력한 학력주의를 지닌 사회임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이때 학력주의(credentialism)란 개인의 실질적인 능력과 실력보다는 출신 대학의 상징적 가치가 개인의 능력으로 간주되고, 이것이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 및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관행과 경향으로 정의될 수 있다(이혜영, 1995; 이견만, 2007; 오호영, 2015). 이혜영(1995)은 학력주의가 교육단계 및 학력연한에 따라 종적 분화뿐만 아니라, 한 교육단계 내에서도 학교종류와 위

신의 차이에 따른 횡적 분화의 두 축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동일한 학력연한 내에서도 종적 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정규(2003)는 4년제 대학 사이의 서열화를 학벌주의⁴⁾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력주의와 개인의 노동시장 이행과정 사이의 관계, 혹은 효과에 주목한다. 학력주의와 노동시장의 관계는 기업의 채용과정에서 학력을 개인의 평가기준으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논의가 된다. 만약 대학학위가 개인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결정한다면 이는 노동시장에서 학력주의가 강하게 표출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보통 한국사회에서의 학력주의는 일반적으로 학벌주의와 연관되면서 부정적인 의미와 자주 연관되곤 한다. 그렇지만 학력주의에는 긍정적, 부정적의미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기실 대학제도는 능력중심, 혹은 업적중심(meritocracy)의 핵심기제로서 정당화된 사회적 선별체제로 기능해왔으며, 사회체제의 존립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최성욱, 2010). 인적자본론(human capital)은 이러한 관점에서 학력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론적 틀이 된다. 대표적으로 Becker(1975)는 대학교육은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높은 노동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때 대학학위는 향상된 소질과 능력을 보증하는 하나의 신용장이 된다. 인적자본론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참여자들이 완전경쟁 및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임금은 수요와 공급곡선에 의해 결정되며, 근로자의 임금은 개인들이 소유한 차등적인 인적자본에 따라 비례하여 결정되는 바, 개인들이 대학학위와 같은 인적자본을 얻기 위한 노력은 완전 공개된 정보 하에서 투자대비 효용이 고려된 합리적 전략 및 판단으로 이해된다. 요컨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차이는 성별, 학력, 연령 등에서 오는 구조적 차별이 아니라 개개인의 선택과 능력, 그리고 교육의 절대적 투여량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Becker, 1975; Becker&Thomas, 1986; 최일수, 2012).

그렇지만, 인적자본론이 토대하고 있는 완전경쟁, 혹은 정보공개에 대한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가정은 여러 연구들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 중 핵심적인 비판은 시장에서 정보는 공평하게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Akerlof, 1970). 더 나아가 고용시장에서 구직자의 직업탐색과 기업의 구인과정은 정보의 불완전성과 지역적 불일치 등의 제반 조건으로 인하여 분권화(decentralized)되어 있음을 여러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다(Mortensen, 1986; 김용성, 2012; 오호영, 2012; 최을 · 이왕원, 2015). Spence(1973)의 시장신호이론(market signalling theory)은 Akerlof

4) 학벌주의란 출신학교의 사회적 배경과 위신에 따라 학력이 차등적으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선행연구들에서는 학벌주의가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 잣대로서 기능 할뿐만 아니라, 파벌적 차원에서 배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한국 특유의 독점적 이익 추구집단으로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한다(김상봉, 2004; 박거용, 2004; 이진만, 2007) 본 연구진은 이하 논의에서부터는 학력주의는 학벌주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설명한다. 박거용(2004)은 한국의 학벌주의가 재벌과 같이 외국어로 번역되기 어려운 한국적이고 전근대적인 집단적 권력유지 방식이자, 집단적인 인간연결망으로 정의한다. 즉, 학벌주의란 개인의 능력과 실력에 대해서 출신대학이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는 학력주의 논의이외에도 관계/정치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차원에 대한 관심을 둔다. 또한 학벌주의의 주된 연구대상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개인들이 아닌 고위 관료직, 혹은 상류층의 출신대학을 살피는 것으로 활용되는 바, 노동시장 진입자격(credit)으로서의 기능을 탐구하는 본 연구에서는 학력주의가 보다 적절한 분석적 틀이자, 개념이 된다.

가 지적인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논의를 강조하며, 기업의 구인과정에서 구직자의 출신 학력이 그들의 능력과 생산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고용주는 채용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수년간의 경험과 통계적 정보를 통해 근로자의 개인적 지표 중 학력이 노동자의 능력, 생산성과 정의 관계를 지닌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서 그들의 능력을 대리하는 변수로서 학력을 기준으로서 활용한다(김안국, 2005). 더불어 Weiss(1995)는 고용주가 학력을 채용기준으로 삼는 것은 생산성이나 능력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면함과 성실성과 같은 근로친화적 태도를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신호이론은 대학학력이 인적자본론이 가정해온 바와 같이 개인적 능력만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등급, 위신과 같은 보다 구조적 수준의 효과가 개입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대기이론(queueing theory)은 고용의 한정성을 강조한 직업경쟁(job competition)의 상황에서는 교육의 절대적 양보다는 상대적 위계가 중요해짐을 지적한다. 직업경쟁 상황에서는 동일한 대학학력이라도 다른 기준을 통한 수직적 분화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때 활용되는 기준은 개인적 능력이외에도 지역, 인종, 성별, 출신 학교 등이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의 노동시장에 대한 효과는 개인의 인적자본만이 아닌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이다(Collins, 1979; Taubman and Wales, 1973, 1974; Thurow, 1975; Sakamoto and Powers, 1995; 이정규, 2003; 최율·이왕원, 2015).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수직적 학력주의는 상기 이론들을 통해 설명되어질 수 있다. 사실 한국의 학력주의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담론적이든, 실증적이든 그 양상과 영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왔다. 가령 담론적 연구들에서는 한국사회의 학력주의, 혹은 학벌주의가 역사적으로 학력에 대한 유교주의적 숭상문화, 한국 특유의 연고주의, 산업화 시기 대학 학력의 정치사회적 이용 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몇몇 연구들은 개인의 채용과정에 대한 학력의 효과를 넘어서, 집단적 이익결사체로서 기능하고 있는 학벌의 정치적 효과에도 초점을 기울이며 한국사회의 학력/학벌구조의 부정적 효과를 진단해낸다(김상봉, 2004; 박거용, 2004; 이견만, 2007). 담론적 연구들뿐만 아니라, 사회학, 교육학, 노동경제학의 연구들은 한국사회에 대학 학력이 지니는 의미와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낸다. 이는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졸자/청년층의 취업결정요인이라는 주제 하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선행연구들은 세부적인 관심변수 선정 및 구성의 차이를 지니지만, 대체적으로 인구사회배경과 같은 개인적 속성, 학력이나 대학등급, 전공과 같은 학교속성, 그리고 스펙, 학점, 어학연수와 같은 대학생들의 취업준비 노력차원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낸다(이규용·김용현, 2003; 황여정·백병부, 2008; 채창균·김태기, 2009; 김미란·민주홍, 2011; 이병희, 2011; 이자형·연보라, 2012; 최일수, 2012; 김동규, 2013).

요약하자면, 선행연구들은 노동시장 이행 및 성취에 대한 대학 학력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인정/보고한다. 다만, 학계에 따라서 그 입장과 해석방식이 다르다. 가령, 경제학에서는 대학학력을 인적자본론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취업 및 임금에 미치는 (정적) 효과를 추정한다. 또한 대학교육의 수익률, 혹은 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대일, 2004;

이희숙, 2008; 김미란·신동균, 2009; 박성준, 2012). 하지만 이러한 경제학적 접근 방식은 사회적 차별로서의 학력주의의 의미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사회학 및 교육학에서는 대학의 수직적 계층화로 인한 상대적 효과에 보다 초점을 집중하고 있다. 해당 연구들에서는 학력주의의 효과가 학력 연한(years of schooling)에서 대학 소재지나 명성, 위신, 서열 등과 같은 위계적 차원으로 그 효과가 이행되었음을 지적한다(Rumberger and Thomas, 1993; 김희삼·이삼호, 2007; 이경희·김태일, 2007; 박환보·김성식, 2011; 조운서, 2013). 요컨대 상기 연구들은 이제는 개인적 차원의 대학졸업의 여부가 아니라, 대학의 상대적 위계 및 사회적 평가가 대졸자의 노동시장 진입 및 성취에 보다 긍정적임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논의들은 한국사회의 고등교육의 팽창이 학력주의를 감소시키기 보다는 대학의 상대적 위계를 통한 학력주의, 혹은 학벌구조로 이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준다. 또한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학력주의의 효용은 학력구조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 측의 기업 및 고용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이병희, 2011; 오호영, 2012; 최윤·이왕원, 2015). 즉, 최근 한국의 청년실업, 대졸자 구직난과 같이 노동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개인들이 단순히 관심과 흥미를 위해 대학을 진학하기 보다는, 노동시장에서 보다 좋은 신호로서, 혹은 자격을 얻기 위해 대학진학을 고려할 것임을 예측해 주기 때문이다.

2. 전공학과 선호구조와 노동시장의 관계

본 연구진은 대입시기의 개인들의 ‘대학-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구조적 차원으로 전공계열 및 학과에 대한 사회적(노동시장)의 선호를 고려한다. 대학교육의 팽창과 노동시장의 악화는 대학 위계를 중심으로 한 대학 내 수직적 학력주의를 넘어선 전공학과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선별을 야기하고 있다. Weert(1996)는 차별화된 선별(Differentiated screening) 이론을 통해 인문사회계열의 낮은 경제적 보상과 직업지위는 해당 계열의 구성원에 기인한 것이기보다는 노동시장과 대학교육의 변화와 비-일치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한다. 그는 이 이론을 통해 인문사회계열의 접근성 및 전문성이 보다 개방적이기 때문에, 특수기술에 집중한 다른 계열에 비해서 쉽게 선별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본 연구진은 해당 이론을 인문사회계열의 열세적 현실을 진단해내는 것이 아니라, 전공학과를 중심으로 새로운 선별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요컨대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기업들이 선호하는 학과, 즉 취업에 유리한 학과가 존재(변화)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사회에서 완고한 학력주의와는 달리 전공학과에 대한 선호구조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는 점이다. 가령, 2000년대 중반까지는 전공학과 선호의 논의에서 이공계 기피현상이 주로 언급되어 왔다. 물론 지방대라는 학력구조에 기본적 초점을 맞추긴 하였지만, 상기 연구들은 지방대학 이공계 출신들은 인문사회계열 출신보다 직업의 안정성이나 위세, 경제적 보상이 열악하였음을 지적한다(박성준, 2004; 정태영·이기영, 2005; 최일수, 2012). 그러

나 2000년대 후반부터 선행연구들은 전반적으로 자연공학계열이 인문사회계열보다 노동시장 진입 및 성과에서 유리함을 지적한다(황여정·백병부, 2008; 이자형·연보라, 2012; 최윌·이왕원, 2015). 김미란과 신동균(2009)도 82년 대비 92년도 졸업생에게서 인문사회계열 대비 이공계 선택의 상대적 인센티브 보다 높아졌음을 살핀다. 거시통계에서도 전 계열 미취업자 중, 사회계열 미취업자가 3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공일치의 취업자 비중도 자연/공학계열이 71.1%, 71.8%인데 반하여, 인문계열은 44.5%, 사회계열은 50%로 보고되고 있다(교육통계서비스, 2009).

최근의 사회적 시류들도 이공계 선호현상 주목하며, 이를 표현해내고 있다. 가령, 취업포털에서는 2014년 올해의 취업키워드 1위로 “전화기(전자전기, 화학공학, 기계공학 대 문사철(문과, 역사, 철학))”를 선정하였다.⁵⁾ 이는 이공계 선호현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취업에 유리한 전공학과에 대한 노동시장의 차별적인 선호를 보여준다. 더욱이 이러한 선호구조는 정부의 정책이나 방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⁶⁾. 특히 학과조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노동시장 및 산업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개입한다는 점에서 선호학과의 구조는 노동시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물론 이러한 학과선호는 국내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며, 서구에서도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전공에 대한 선호의 양태와 영향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Roska, 2005).

전공 선택에 따른 구조적 보상의 차이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많은 연구들이 대학-전공 선택은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부모와 가구의 선택이면서 사회적 선택임을 주장한다. 가령 박현준 외(2015) 및 김기현과 오병돈은 한국에서 전공에 대한 선택이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존재하며, 또한 가족배경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성역할 관념 등으로 경제적 유인보다는 직업안정성이나 흥미/적성에 기초한 인문사회계열과 같은 전공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een, 1992; Leppel et al, 2001; Wilson et al, 2007; 김기현·오병돈, 2013). 가구배경의 차원에서도 부모 및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기초학문 및 인문사회계열을 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정보공유나 문화자본의 형성배경이 되는 성장지역도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Davis and Guppy, 1997; 박현준·이자형·김경근, 2015). 특히 고교시기 대학진학에 대한 결정, 대학과 전공 사이의 선택의 의사결정 과정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와 가구, 혹은 학력주의나 노동시장 상황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 논의는 대학교육의 의미가 지나치게 노동시장 성과에 의해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대학전공불일치로 인해 직문전공불일치로 이어지는 “무선택의 경로의존성”을 지적한다. 이는 고교-대학의 과정과, 대학-노동시장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를 내적으로 설정하지 못하고 외부적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하여 심리학에서는 진로미결정이라는 개념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해당 연구들

5) “올해 취업 ‘전화기’뜨고 ‘문사철’ 지고(중앙일보, 2014. 12. 24, <http://news.joins.com/article/16780910>)

6) 최근 교육부의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간 인력수급 균형을 위해 시행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은 공학계열의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2014)의 ‘2014~2024년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에 근거한 것으로서, 해당 보고서에서는 공학 및 의약계열은 인력의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다른 전공은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은 교육적, 직업적 진로를 설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불안, 우울 등을 겪게 되고 결국 적극적인 진로준비 행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이영선·김정희·이영순, 1999; 유지선, 2004; 황매향·박혜영, 2005). 또한 임은미 외(2009)는 대학시기 진로교육의 부재 등으로 인해 진로미결정 상태가 노동시장까지 지속되면서, 학생들은 결국 취업에서도 수동적인 상태에 처함을 지적한다. 세부적으로 대학을 먼저 고려한 학생들은 자신들의 적성과는 상관이 없을뿐더러, 노동시장 내에서도 비인기 전공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이런 전공들의 경우 대부분 전공을 살리는 직업을 갖기 어려울 뿐더러, 직장에 취업을 한 이후에도 이들은 전공과 직무의 불일치로 인한 여러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들은 취업 이후에도 별도의 직업훈련이 필요하며 대학에서 배운 전공 지식은 활용될 틈이 없다.

이들은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시기에, 개인은 주어진 상태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한 것이고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이익이 가장 큰 것이라 예상되는 일자리를 택한 것일 뿐이지만 이러한 무-선택의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이들은 결과적으로 전공과 직무의 불일치를 겪게 된다. 전공-직무의 불일치는 개인의 주관적인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를 낮게 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감소시킨다.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자신의 역량발휘를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노동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또한 ‘임금’이라는 객관적인 보상도 기대했던 만큼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왜곡된 대학-전공-노동시장 구조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부작용은 개인이 감내하게 되며 전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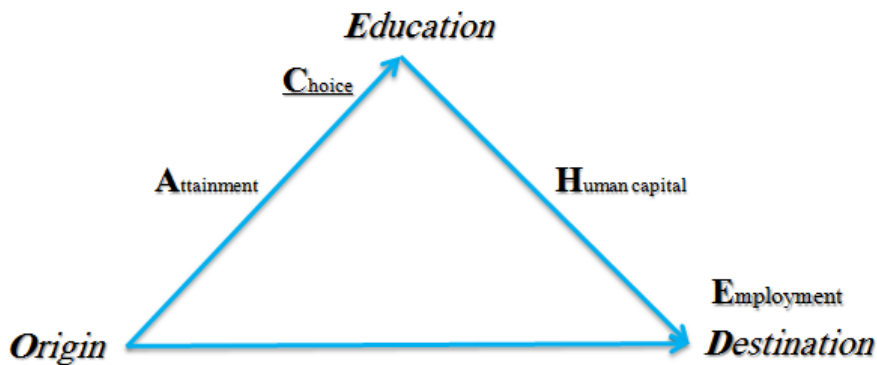
3. O.E.D(Origin, Education, Destination)를 통한 연구모형 구성

이상의 논의들은 대입 시기 개인들이 지나는 대학-전공 선택의 순간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사회의 수직적 학력주의와 특정학과에 대한 선호구조가 개입되어 있는 선택일 수 있음을 살펴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선택(choice)이 지나는 의미를 보다 명확히 정리해본다.

학력주의와 선호학과의 구조적 영향은 대입을 앞둔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시기에 대학의 명성, 혹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 중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지를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요컨대, 개인들은 자신의 선호와 지향, 그리고 미래의 이득을 반영한 ‘합리적’ 선택을 추구하는데, 이 때 개인들은 이념형적으로는 두 개의 선택지를 가지게 된다. 첫 번째 선택지는 위계적 대학서열구조에 지향과 가치를 두는 ‘대학(위계)우선’ 선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선택을 한 개인들은 학력주의에 기초하여 보다 명성 있는 대학의 졸업장이 사회적 보상을 극대화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지닌다고 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선택지는 학교의 위계보다는 전공을 중심으로 대학을 선택하는 ‘전공학과우선’ 선택이다. 특히 ‘전공학과우선’ 선택은 흥미와 적성에 우선권을 둔 전공 선택의 경우뿐만 아니라, 공학계열, 상경계열, 의학 계열과 같이 취업에 유리한 전공 선택이 통합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공학과 우선선택을 ‘취업불리_전공학과우선’과 ‘취업유리_전공학과우선’의 두 선택으로 분리

하여 효과를 추정해본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의 선택은 전공과 학과를 동시에 고려한 경우로서 해당 두 선택 사이에서 중간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대학-전공의 선택(choice)은 19살이라는 고3시기에 포착되는 것으로, 이러한 선택에 선행(before)하고 있는 부모/가구배경이 영향이 개입될 수 있다. 또한 선택 이후(after) 종속변수인 첫 취업까지는 평균적으로 6~9년이라는 긴 시간적 거리가 있는 만큼 해당 시기 대학에서 얻어지는 인적자본, 혹은 관측되지 않은(unobserved) 변수들의 효과가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교육계층화의 기본적 모형으로 간주될 수 있는 O.E.D (Origin, Education, Destination) 모형을 통해 선택(Choice)의 이론적/분석적 위치를 확인하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엄밀히 통제하려 한다. O.E.D 계층화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림 1] 계층화 과정의 기본모형(지위획득모형)

여기서 본 연구가 관심을 지니는 대학-전공 선택은 O->E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특정 전공의 선택에 따라 약간의 대학서열이 변화되게 된다. 즉, 어떤 개인이 지닌 수능점수 (Attainment)에서는 인기학과를 택하되 배치표에서 한-두 급간 낮은 대학을 선택하거나, 혹은 비선호학과를 택하되 보다 높은 대학위계를 확보하는 선택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선택 (Choice)이후 취업까지에 대한 영향(C(E)->D)에 대해서는 대학교육을 통한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함양과 혹은 C의 선택에서 확보한 대학 위계의 효과가 반영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대학-전공 선택에 개입될 수 있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O.E.D모형에 근거하여 유관변수들을 통제하려 한다.

Ⅲ. 분석 대상 및 변수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를 활용하였다. KEEP은 2004년 학생·가구·교사·학교행정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후, 이후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한국교육고용패널은 2004년 중학교 3학년 2,000명, 일반계, 실업계고 3학년 각각 2,000명 총 6,000명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이들은 전국 대표성을 갖도록 층화집락추출(stratified cluster sampling)되었으며, 모집단(population)은 2004년 시기 한국의 중고교 학생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 1차 조사부터 2014년 11차 조사까지 총 11년간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단, 10년을 걸치는 기간 동안 병역의무, 추적불능 등 표본유실이 지속적으로 발생·증가하는 바, 한국교육고용패널은 7차(2010)조사 때 병역의무를 마친 2년제 및 4년제 대졸자 남성 757명이 비교·보정패널로 추가되었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고3학생들이 대입 시 지녔던 ‘대학과 전공’ 사이에서의 선택이 이후 그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핌에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생들로만 한정하여 상기 관계를 실증해낸다. 따라서 연구대상은 KEEP 1차(2004) 조사의 고3패널을 기본 대상으로 하되, 이후 수능을 치루고 4년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된다. 세부적으로 2차(2005)조사 이후부터 11차(2014)년까지 조사가 지속된 4년제 대졸자는 약 1,200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당 1,200명의 표본에는 7차 조사에서 추가된 보정 패널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본격적인 분석에서는 관련 변인들을 고려하면서 표본 유실이 발생하였다. 우선 종속변수인 졸업 후 첫 취업 이행 관련 변수를 구성할 수 있는 표본은 약 1,008명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통제 및 독립변수의 결측치로 인해 이후 분석에서는 총 916명이 활용된다.

3. 변수설명

1) 통제변수

<표 1>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된 통제변수의 측정과 기술통계치가 제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전공’ 선택에 대한 의미 및 효과를 엄밀히 추정하고자 인구배경(Origin), 취업노력(Human Capital), 차원과 각 하위변수들을 이후 분석에서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표 1〉 통제변수 측정 및 설명

| 독립변수 | | 측정 | n | 평균 | 표준편차 |
|--------------------------------|------------|--------------------------------------------------------------------------------------------------------------------|------|-------|-------|
| 인구 배경 (Origin) | 성별 | -조사대상자의 성별 1=남자 0=여자 | 1008 | .662 | .473 |
| | 부모학력 | -남성/여성보호자의 평균 학력(KEEP=1차 보고) 1=무학 2=초졸 3=중졸 4=고졸 5=전문대졸 6=대졸 7=석사 8=박사 | 1008 | 4.53 | 1.54 |
| | 가구소득 | -조사대상자의 가구소득(KEEP=1차 보고) 1=100만원(미만) 2=200(이상)~300(미만)만원 3=300~500만원 4=500~700만원 5=700~1000만원 6=1000만원 이상 | 1008 | 2.63 | 1.077 |
| 취업 노력 (human capital) | 해외/어학연수 | -학부기간 해외/어학연수 경험 여부 | 1008 | .141 | .348 |
| | 영어공부 | -학부기간 영어공부 경험 여부 | 1008 | .805 | .404 |
| | 자격증취득 | -학부기간 자격증 취득 여부 | 1008 | .468 | .499 |
| | 인턴경험 | -학부기간 인턴경험 여부 | 1008 | .396 | .489 |
| | 학점 | -만점대비 졸업학점 평점비율=학점평점/만점평점 | 919 | 79.59 | 8.79 |
| 대학/ 전공 (Educa- -tion) | 상위권대학 | -조사대상자 대학특성 | | | |
| | 1) 상위권대학 | 1=서울소재 4년제, 지방거점 및 특수대학(KAIST, 포항공대 포함) | 1008 | .278 | .448 |
| | 0) 비-상위권대학 | 0=지방소재 4년제(1을 제외한 4년제 대학) | 1008 | .722 | .448 |
| | 대학전공 | -조사대상자의 대학전공 계열 | | | |
| | 1) 인문계열 | | 1004 | .095 | .293 |
| | 2) 사회계열 | | 1004 | .291 | .454 |
| | 3) 교육계열 | | 1004 | .054 | .226 |
| | 4) 공학계열 | | 1004 | .301 | .459 |
| | 5) 자연계열 | | 1004 | .118 | .322 |
| 6) 의약보건계열 | 1004 | | .034 | .181 | |
| 7) 예체능계열 | 1004 | | .109 | .311 | |
| 수능 | 수능점수 | -언어, 외국어, 수리 영역의 백분위 평균 수능점수 (재시험의 경우 3수의 수능점수까지 인정) (각 탐구영역은 제외) | 644 | 48.45 | 24.71 |

2) 독립변수 : (대입 시) “대학-전공” 선택

<표 2>에서는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대입 시 ‘대학-전공’ 선택의 측정과 사례 수, 그리고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시된다. KEPP에서 제공하는 원 변수는 “대학-동시-전공”의 선상으로 배치될 수 있다. 이때 대학지향 선택은 대학위계를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에 전공지향 선택의 경우에는 보다 복합적인 의미가 혼재되어 있다. 즉, 개인이 전공을 선택할 때에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기초를 둔 ‘하고 싶은 전공’의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혹은 노동시장 수요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보다 ‘취업에 유리한 전공’의 의미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학 학과를 고려하여 전공지향선택-취업유리 와 전공지향선택-취업 불리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2〉 ‘대학-전공’ 선택 측정 및 설명

| 독립변수 | 측정 | 선택별 n (총 n=1008) |
|-----------------|--------------------------------------------|---------------------|
| 대학지향선택(=1) | 대입 시, 대학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 259 |
| 전공지향선택_취업유리(=2) | 대입 시, 전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취업 비선호/비유리* 학과로 진학 | 381 |
| 전공지향선택_취업불리(=3) | 대입 시, 전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취업 선호/유리* 학과로 진학 | 140 |
| 동시고려선택(=4) | 대입 시, 대학과 전공을 동시에 고려함 | 228 |

*본 연구에서는 취업선호 학과로 상경계열(경영/경제), 법학과,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공과를 고려하였음.

3) 종속변수 : 첫 취업 및 첫 직업 형태별 취업이행 기간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대졸자들의 첫 취업시기로의 이행기간과 첫 취업의 특성이다⁷⁾. 사실 근로자의 노동시장 성과로는 임금과 같은 경제적 보상이 주로 고려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인 대졸자 청년층의 경우에는 구직자와 고용자 양측이 서로를 탐색하는 시기로서 초임수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 더욱이 최근의 심각한 청년층 구직난에서는 취업 여부와 이행기간 그 자체가 노동시장 성과로 인식되고 있다(김미란, 2005; 김동규, 2011; 이병희, 2011; 변금선, 2014), 그러나 최을과 이왕원(2015)은 청년층의 취업선호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청년들이 의중임금이나 자신이 지닌 여러 눈높이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제안 받기 전까지 취업을 늦출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고학력 대졸자의 경우에는 눈높이 수준에 맞지 않은 이른 취업보다는 취업준비 기간을 가진 후,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학력주의 관점에서 대학이 지니는 상대적 위계는 해당 대학의 학생들에 대한 보상의 근거가 된다. 반면, 본 연구의 또다른 이론적 틀인 전공학과 선택의 경우에서도 이공계열은 빠른 취업이나 대규모 제조업계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나, 문과계열은 전문직종이나 보다 소규모 기업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한다. 요컨대, 대학과 전공 선택은 단순히 취업여부가 아닌, 취업의 질적 특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정이환(2007) 최근 한국사회의 이중노동시장구조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두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최근 연구들에서는 첫 취업뿐만이 아닌 고용형태 및 기업규모의 질적특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대졸자의 첫 취업을 비정규직, 중소기업정규직, 대기업정규직으로 측정하였다.

7) KEEP에서는 응답자의 졸업 후 첫 취업에 대해서 직접 묻고있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개인의 대학졸업 이전 1년 시점까지를 고려하여, 첫 취업여부를 판단한다. 즉, 본 연구진은 대학졸업(1년전) 이전까지 학업과 병행한 직업을, 실제 대졸 이후에 얻은 직업과 동일 선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졸업(이전 1년전까지) 이후 얻은 직업을 첫 취업으로 정의한다.

4. 분석개요 및 방법

앞서 본 연구진은 O.E.D모형을 토대로 본 연구의 이론적 연구모형 및 목적을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앞서 제시된 이론적 연구모형에 근거한 ‘대학/전공 선택과 노동시장 이행의 관계를 실증하기 위한 분석개요 및 절차, 그리고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1) ‘대학-전공’ 선택 별 특성 확인(ANOVA & Case study)

우선 본 연구는 ‘대학-전공’ 선택에 따라 주요 변인들이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를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ANOVA)를 통해서 확인해본다. 이는 ‘대학-전공’ 선택 별로 응답자의 수능, 인구배경(Origin), 취업준비노력(Human capital), 대학-전공(Education)의 차이 양상과 그 정도를 살필 수 있게 한다.

그 다음으로는 본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대학선택=학력주의’, ‘전공선택=흥미 관심/취업유리’의 관계를 살파기 위한 사례분석을 실시한다. 사실 실제 대학과 전공의 선택은 매해 수능 난이도, 대학경쟁률, 정책방향, 더 나아가서는 사회/경제상황 등에 의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는 ‘대학-전공’ 선택의 가정처럼 구분이 이념형적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함의한다. 그러나 ‘대학-전공’ 선택이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더라도 평균적인 경향에서는 본 연구진의 예측과 같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수능점수 급간별로 응답자들을 추출한 후, 각 선택별로 응답자들의 상위대학 비중을 확인한다. 특히 수능백분위 평균성적 90% 이상의 응답자들에 대해서는 실제 대학 및 학과정보를 각각의 사례(case)들로서 확인해본다. 만약 대학을 선택한 집단이 보다 높은 대학랭킹으로 확인되고, 반면 전공을 선택한 집단에서는 취업에 유리하거나 혹은 흥미위주의 학과분포를 보인다면, 이는 ‘대학-전공’ 변수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첫 취업 및 직업 특성 별 이행기간 생존분석(Competing Risk Model)

이상 ANOVA 및 Case 확인에서는 ‘대학-전공’의 차등적 분포와 학력주의/선호학과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분석은 인과적 추론모형이 아닌, 기술적 분석으로서 ‘대학-전공’ 선택이 실제 노동시장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유관변인들을 통제한 다변량 모형을 통해 종속변수인 ‘대학 졸업 후 첫 취업/형태별 이행기간’에 대한 ‘대학-전공’ 선택의 효과를 추정해낸다. 특히 기간을 종속변수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를 활용한다. 생존분석은 관찰기간 동안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의 시간적 흐름을 예측하고, 설명하는데 유용한 분석방법이다(박희수·강현철, 2014).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해본다면, 우선 대학졸업은 사건(event)의 시작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이후의 기간은 생존기간으로 설정되며, 응답자의 취업은 해당 생존기간이 종료되는 실패사건(failed event)이 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졸업 이전 12개월을 이전 기점(starting point)으로 설정하고, 해당 표본이 이후 첫 취업이라는 사건을 통해 탈락(attrition)될 때까지의 기간을 생존기간(duration)으로 설정한다. 여기서 종속변인의 분포는 위험률 함수(hazard function)로 정의된다. $h(t)$ 로 표현될 수 있는 위험률은 지속기간 T 가 시점 t 까지 유지되었을 때(특정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 순간 사건이 발생할 확률, 혹은 생존기간이 종결될 확률적 강도(probabilistic intensity)이다(이동하 외, 2014). 반면 생존기간이 지속될 확률적 강도인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 역시 존재하며, 생존분석은 상기 두 함수를 통해 특정 사건 발생확률을 시간에 따라 예측하는 것이다(최을 · 이왕원, 2015). 또한 생존분석은 시간적 흐름이 분석에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생존분석은 기존의 이항로지스틱 분석과는 달리 사건이 경험되지 않은 탈락된(censoring)사례가 고려된 우측절단, 혹은 중도절단의 경우에도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상의 생존분석의 산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h(t) = \lim_{\Delta \rightarrow 0} \frac{\Pr[t \leq T < t + \Delta | t \leq T]}{\Delta}$$

단, 상기 생존분석에서는 실패사건이 하나만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실패사건의 경쟁 확률을 추정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첫 취업이라는 하나의 사건뿐만 아니라, 대기업정규직, 중소기업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세 형태의 실패사건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생존기간을 종결시킬 사건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사건의 위험들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정 사건의 발생은 경쟁하고 있는 다른 사건들의 확률을 고려한 후 추정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을 생존분석에 적용, 발전시킨 것이 경쟁위험모형(competing risk model)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경쟁위험모형은 여러 가지 유형의 위험이 경쟁하다가 그 중 하나가 실현되어 지속기간이 종결되는 상황을 모형화 한 것이다(이동하 외, 2014). 해당 모형의 산식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h(t) = \sum_{l=1}^C \left(\lim_{\Delta t \rightarrow 0} \frac{\Pr[t \leq T \leq t + \Delta t, L=l | T \geq t]}{\Delta t} \right) = \sum_{l=1}^C h_l(t)$$

구체적으로 첫 취업의 여부가 전체의 위험(overall hazard)을 모형화 했다면, 경쟁위험모델은 각 원인 특정적 위험을 고려한다. Prentice et al.(1978)은 특정 원인에 의한 위험을 표현하는 원인특정적 위험함수(cause-specific hazard function) $h_l(t)$ 와 전체 위험함수 $h(t)$ 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l=1, \dots, C$). 이는 앞서 살펴본 전체 사건(첫 취업) 위험률 $h(t)$ 에 대해서 L 이라는 사건 발생의 원인과 C 라는 사건발생 원인의 개수가 고려된 것이다. 여기서 원인특정적 위험함수 $h_l(t)$ 는 t 시점까지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l 번째 원인으로 바로 다음 사건이 발생할 조건부 확률이 된다(최을 · 이왕원,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경쟁위험모형을 적용하여 세 가지의 취업형태의 경쟁 위험의 관계를 모형화한다. 그리고 각각의 취업형태의 사건 발생확률을 실증적으로 확인해본다.

IV. 분석결과

1. ‘대학-전공’ 선택 별 특성 확인

1) ‘대학-전공’ 선택별 주요변인 차이비교(ANOVA)

이하 <표 3>에서는 ‘대학-전공’ 선택 별 주요변인 차이를 보여준다. 결과를 정리해보면, 우선 수능점수는 선택에 따라 차이가 유의미하게 구별됨을 확인할 수 있다(p<0.01). 대학을 우선 선택했다고 응답한 집단의 수능 백분위 평균은 52.61이었으며, 다음으로 대학과 전공을 동시에 고려했다고 응답한 집단은 50.04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선택 집단은 더욱 낮은 수능점수로 확인되었는데, 우선 취업에 유리한 전공을 선택한 집단의 평균 수능백분위는 48.97로 확인되었으나, 취업에 불리한 전공을 선택한 집단은 44.55로 다른 집단들에 비하여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전반적 가정인 대학과 전공 선택 간의 위계성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즉, 노동시장 이행에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높은 위계의 학교’, 그리고 ‘선호되는 전공학과’는 동일 수능 점수일 때 보다 우위에 있는(경쟁률이 높은) 선택임을 알려준다.

다음 인구배경의 차원에서는 성별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p<0.001). 이는 앞서의 선행연구들이 지적해온 바처럼 대학/전공의 선택에서는 남자는 보다 취업에 유리하거나, 혹은 금전적 유인에 기초한 선택을 하는 반면, 여자는 흥미나 안정성에 기초한 선택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Green, 1992; Dvies and Guppy, 1997; 김기현·오병돈, 2013). 즉, 노동시장 이행에 유리한 대학지향, 취업유리 전공의 경우에는 남성의 비중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순수/인문학과 같이 취업에 불리한 전공에는 여성의 비중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응답자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 쌓은 취업노력, 즉 인적자본의 차원의 결과를 정리해본다. 우선 해외연수의 경우에는 동시고려 집단은 17%, 대학지향 집단은 17%로 전공지향 집단의 13%, 9%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취업에 유리한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은 해외연수 비중이 매우 낮았다는 점이 흥미롭다. 영어공부의 경우에는 대졸자 대다수가 경험을 지니고 있었으나, 취업불리 전공을 선택한 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10%정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동시고려 집단도 대학지향 및 취업유리 집단에 비해서 약 5%정도 낮았다. 반면에 인턴경험은 취업불리 전공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서 약 10~15%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흥미롭다. 전공계열 정보를 확인해보면, 전공선호 취업불리 선택 집단은 타 집단보다 의약보건 및 교육계열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학점도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취업불리 전공학과를 선택한 경우 학점이 보다 높고, 대학이나 취업유리 전공 집단은 학점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대학/전공의 차원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상위권대학 비중은 역시 대학지향 집단이 36%로 가장 높게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동시고려=전공지향 취업유리, 전공지향 취업불리 집단의 순서로 배치되고 있었다. 이는 수능점수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대학지향 선택은 학

력주의의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다음으로 전공계열의 결과이다. 앞서 연구진은 학과경쟁률과 대학위계의 상반된 관계로 인하여 대학지향 선택 집단은 선호학과의 비중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예상에 기초하여 결과를 살펴보면, 인기/선호학과 비중이 낮은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 비중이 타 집단보다 약 5%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진의 예상과 부합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전공지향 선택의 경우, 취업유리/불리학과의 구분을 제거한 후 전공계열의 분포를 확인한다. 결과를 살펴보면, 전공지향 집단의 경우는 교육, 의약보건, 특히 예체능 계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전공지향 선택의 경우는 노동시장 진입보다는 개인적 관심사에 기초한 선택에 보다 치중되어있음을 함의한다. 마지막으로 동시고려 집단은 대학-전공 사이의 선택에 있어서 다소 중간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후 생존분석을 위해 활용될 취업준비기간(duration)에 대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았다. 분석결과에서는 취업준비기간이 평균 20개월 이내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 ANOVA분석은 두 변인의 관계만을 다루는 단변량 분석이라는 점에서 이후 경쟁위험모형에서는 유관변인들을 통제한 후, 취업준비기간에 대한 결과를 살핀다.

〈표 3〉 대학-전공 선택 별 주요변인 특성비교

| 차원 | 변수 명 | 대학지향 | | 전공지향 취업비선호 | | 전공지향 취업선호 | | 동시지향 | | F-value |
|----------------------------|----------------------|-----------------|-------|---------------|-------|--------------|-------|------|--------|---------|
| | | n | mean | n | mean | n | mean | n | mean | |
| 수능점수 (Attainment) | 수능 백분위* | 169 | 52.61 | 252 | 44.55 | 71 | 48.97 | 152 | 50.04 | 3.96** |
| 인구배경 (Origin) | 상별 | 259 | 0.69 | 381 | 0.59 | 140 | 0.80 | 228 | 0.67 | 7.66*** |
| | 부모학력 | 259 | 4.49 | 381 | 4.59 | 140 | 4.29 | 228 | 4.61 | 0.95 |
| | 가구소득 | 259 | 2.69 | 381 | 2.56 | 140 | 2.82 | 228 | 2.57 | 2.44 |
| 취업노력 (Human capital) | 해외연수 | 259 | 0.17 | 381 | 0.13 | 140 | 0.09 | 228 | 0.17 | 2.21 |
| | 영어공부 | 259 | 0.85 | 381 | 0.76 | 140 | 0.86 | 228 | 0.79 | 3.68* |
| | 인턴경험 | 259 | 0.36 | 381 | 0.45 | 140 | 0.39 | 228 | 0.36 | 2.53 |
| | 학점 | 243 | 78.62 | 338 | 80.71 | 133 | 78.94 | 205 | 79.35 | 3.14* |
| 대학/전공 (Education) | 자격증 | 259 | 0.47 | 381 | 0.49 | 140 | 0.41 | 228 | 0.47 | 0.71 |
| | 상위대학 | 259 | 0.36 | 381 | 0.21 | 140 | 0.29 | 228 | 0.29 | 5.45** |
| | 취업준비기간 (duration) | 259 | 19.36 | 381 | 19.80 | 140 | 18.24 | 228 | 20.75 | 1.83 |
| | 전공계열 | (전공지향(통합)_전공계열) | | | | | | | | |
| | 인문계열 | 257 | .12 | 519 | | .09 | 228 | | .08 | 1.37 |
| | 사회계열 | 257 | .29 | 519 | | .28 | 228 | | .31 | 0.31 |
| | 교육계열 | 257 | .04 | 519 | | .06 | 228 | | .06 | 0.77 |
| | 공학계열 | 257 | .31 | 519 | | .29 | 228 | | .31 | 0.17 |
| | 자연계열 | 257 | .17 | 519 | | .11 | 228 | | .08 | 4.41* |
| | 의약/보건 | 257 | .02 | 519 | | .04 | 228 | | .03 | 1.43 |
| 예체능계열 | 257 | .05 | 519 | | .13 | 228 | | .12 | 5.39** | |

*=P<.05, **=P<.01, ***=P<.001

2) 수능급간별 ‘대학-전공’ 선택 별 대학특성

앞서 ANOVA분석을 통해서 ‘대학-전공’ 선택에 따라 수능점수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분석은 전 표본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동일한 수능점수’를 지닌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선택의 경향성을 엄밀히 밝힐 수 없었다. 따라서 <표 4>의 분석에서는 동일한 수능점수(급간)을 지닌 학생들에게서 ‘대학-전공’ 선택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한다. 만약 동일한 점수대가 가정된 상태에서도 대학지향 선택 집단의 대학 위계가 높게 확인되고, 전공학과에서는 취업에 유리하지 않은 학과가 보다 많이 분포되어 있다면 이는 본 연구진의 ‘대학선택=위계추구’의 예상을 지지하는 결과일 것이다.

먼저, 수능백분위 상위 90%이상 급간에서는 응답자 각각의 대학과 학과정보를 확인하였다. 이때 대학순위는 2005년 대입 시의 중앙일보 대학평가에 근거하여 순위가 부여되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지향 선택 집단의 대학순위는 상위 7순위 정도로 확인되었다. 전공지향 선택 집단에서는 취업유리 학과를 선택한 경우가 상위 6순위 정도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 법대를 선택한 응답자가 평균 순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취업불리 학과를 선택한 집단과 평균을 낸다면 약 9순위 정도가 된다. 따라서 대학순위를 중심으로는 “대학지향(7)전공지향(9)동시고려(10)”의 배치를 보인다. 한편 전공학과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대학지향 선택의 경우에는 인문, 사회, 자연과학과 같이 순수학문계열이 두드러진 분포를 보인다. 반면, 전공지향 선택(취업불리/유리통합)에서는 취업유리학과 비중이 50%로서 대학지향 선택의 취업유리학과 비중 13%와 명백히 대비된다. 동시고려 선택의 경우에는 ‘외국어대-언어계열’ 선택과 같이 특수적 선택으로 인해 경향성의 파악이 다소 어렵다. 상기 결과는 수능 상위 90%이상의 소수의 응답자들만 선정했다는 점에서 대표성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해당 분석결과는 대학지향 선택 집단에서는 비인기학과(순수학문)를 택하면서, 보다 높은 대학위계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파악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진의 가정을 지지한다.

또한 본 연구진은 수능백분위 90~70.1, 70~50.1, 50~0이하 급간을 기준으로 상위권대학과 취업유리학과의 비중을 확인한다. 단,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30위까지만 순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2005년 기준), 본 연구진은 상위권대학 비중을 활용한다. 우선 수능백분위 90~70% 급간의 중상위권 대졸자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지향 선택 집단의 경우 상위권대학 비중은 61.7%로 전공지향 선택 집단의 59.6%보다 높게 확인되고 있었다. 반면 취업유리학과 비중은 전공지향선택 집단이 34%로 대학지향선택 집단의 26.5%보다 높게 확인되고 있었다. 따라서 중상위권 대졸자에게서도 ‘대학-위계’, ‘학과-흥미/취업유리’의 경향이 포착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동시고려 집단의 경우 상위권대학비중은 54.3%로 가장 낮았으나, 취업유리학과는 37.1%로 가장 높게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수능백분위 70~50%의 중하위권 급간에서도 상위권대학 비중은 대학지향(46%)동시고려(25%)전공지향(24%)의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그러나 취업유리학과 비중에서는 상위권/중상위권과는 달리 대학지향선택 집단에서 43.9%로 전공지향선택 집단의 18.1%보다 높게 확인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상위권 대학 변수는 서울소재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거점 대학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지방거점 대학들에서는 보다 취업에 중점을 둔 학과구성이 높다는 점에서 앞의 수능 상위/중상위권 급간과의 패턴 차이는 서울소재/지방거점 대학의 차이가 혼재되는 것으로 보인다. 수능 50%이하의 하위권 급간은 중하위권 급간과 같이 대학지향 집단이 상위권 대학과 취업유리학과 비중이 모두 높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상기 결과를 요약하자면, 우선 수능백분위 70% 이상의 상위/중상위권 급간에서는 대학지향 선택 집단이 취업유리학과 비중은 낮지만, 보다 높은 대학의 위계를 지니고 있었다. 반대로 전공학과 우선 집단은 대학의 위계는 대학지향 집단보다는 낮지만, 취업유리학과 비중이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수능백분위 70% 이하의 중하/하위권 급간에서는 대학지향 선택 집단이 상위권대학 비중 및 취업유리학과 비중이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후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결과들은 ‘대학-전공’ 선택이 개인들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여러 복합적 효과들이 혼재된 것임을 함의케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력주의와 편향된 학과선호의 구조를 인지/해석한 개인의 전략/선택”의 가능성을 이후 생존분석을 통하여 엄밀히 추정해본다.

〈표 4〉 (수능점수 기준) ‘대학/전공’ 선택 별 응답자 학교 및 학과특성*

| 수능점수 기준 | 대학지향 | 전공지향 _취업불리 | 전공 우선 | 전공지향 _취업유리 | 동시고려 |
|------------------------|----------------------|------------------|-----------------|------------------|---------|
| 수능 백분위 상위 90%이상 | | | | | |
| 대학순위(중앙일보) | 7.25 | 12.0 | (8.7) | 5.7 | 10.4 |
| 취업유리학과 비중(%) | 13 | 0.0 | (50) | 100 | 20 |
| 응답자 학교/학과정보(%) | 고려대 인문 _언어문학 | 성균관대 사회 _사회과학 | 서울대 사회 _법률 | 성균관대 사회 _법학 | |
| | 연세대 인문 _인문과학 | 한국외대 _언어문학 | 한양대 사회 _법학 | 한국외대 인문 _언어문학 | |
| | 성균관대 인문 _인문계열 | 부산대 _언어문학 | 한양대 사회 _경영경제 | 한국외대 인문 _언어문학 | |
| | 성균관대 사회 _법률 | | | 중앙대 사회 _사회과학 | |
| | 서울시립대 사회 _사회과학 | | | 성균관대 공학 _소재재료 | |
| | 고려대 자연 _생물화학환경 | | | | |
| | 성균관대 자연 _수학물리천문지리 | | | | |
| 수능백분위 90% ~ 70% | | | | | |
| 상위권대학비중(%) | 61.7 | 58.0 | (59.6) | 62.5 | 54.3 |
| 취업유리학과 비중(%) | 26.5 | 0.0 | (34.0) | 100 | 37.1 |
| n(%) | 34(29%) | 31(27%) | | 16(14%) | 35(30%) |

<표 계속>

| 수능점수 기준 | 대학지향 | 전공지향 _취업불리 | 전공 우선 | 전공지향 _취업유리 | 동시고려 |
|-----------------|---------|---------------|----------|---------------|---------|
| 수능백분위 70% ~ 50% | | | | | |
| 상위권대학비중 | 46.3 | 22.1 | (24.1) | 33.3 | 25.8 |
| 취업유리학과 비중(%) | 43.9 | 0.0 | (18.1) | 100 | 32.3 |
| n | 41(26%) | 68(44%) | | 15(10%) | 31(20%) |
| 수능백분위 50% ~ 0% | | | | | |
| 상위권대학비중 | 13.9 | 14.8 | (12.3) | 2.7 | 16.4 |
| 취업유리학과 비중(%) | 34.2 | 0.0 | (20.7) | 100 | 36.7 |
| n | 79(23%) | 142(42%) | | 37(11%) | 79(23%) |

*본 분석은 사범계열, 의약계열을 제외한 문/이과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 대졸자의 첫 취업 이행에 대한 생존분석 결과

최근 청년층의 구직난이 심화되면서 대졸자의 빠른 노동시장 진입은 긍정적 성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유관변인들을 통제한 후, 개인들의 ‘대학-전공’ 선택이 노동시장 진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하 <표 5>에서는 대졸자의 첫 취업 이행기간에 대한 콕스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본 연구의 주된 관심 변인인 ‘대학-전공’ 선택은 첫 취업 이행 자체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인구배경의 차원에서는 수능점수 포함모형에서 부모학력이 유의미하였다. 이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첫 취업 이행 확률이 높아짐을 알려준다. 취업노력 차원에서는 인턴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학점이 높을수록 첫 취업 확률이 높았으며, 대학 전공의 차원에서는 공학계열일수록 첫 취업 확률이 62.5%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첫 취업에 이행에 대한 분석에서는 대학의 위계나 수능점수, 혹은 ‘대학-전공’ 선택보다는 취업의 노력이나 전공, 그리고 부모의 학력과 같은 요소가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표 5>에서는 수능점수를 포함한 모형과 포함하지 않은 모형을 각각 제시한다. 이는 수능점수가 개인의 ‘대학-전공’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피기 위함이다. 분석결과는 수능점수를 통제했을 때, 주요 변인들의 변화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능점수의 효과나 통계적 유의미성은 매우 낮았다. 본 연구진은 수능점수의 효과가 이미 상위권 대학 진학 및 전공, 그리고 취업노력에 의해 매개 및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⁸⁾.

첫 취업 이행에 대한 생존분석은 노동시장 진입에 대하여 “얼마나 빨리”라는 이행기간의 양적차원을 설명해낸다. 그러나 최윤희와 이왕원(2015)이 지적한 바처럼 고학력 대졸자들은 자신의 교육적 투자와 상응하는 보상을 확보하거나, 혹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여러 기대에 따라 취업 자체를 유보시키기도 한다. 이는 첫 취업 이행만으로는 대졸자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8) 이후 첫 직장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형태별 경쟁위험모형 분석결과에 대해서도 본 연구진은 수능점수를 통제한 모형을 추가 분석하였다. 수능점수를 통제 한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에서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수능점수 통제 시 약 300명에 가까운 표본이 유실되며, 보정패널이 제외되어 표본의 대표성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수능점수를 통제한 경쟁위험모형을 부록을 통해 제시한다.

실질적인 효과를 파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가 관심을 지니는 ‘대학-전공’ 선택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해당 대학의 기대수익이나, 혹은 노동시장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상황을 반영한 개인의 선택은 이후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전략을 취할 가능성을 함의한다. 가령, 학력주의에 기초한 대학을 중시한 개인은 금전적 가치나 사회적 위신을 보다 중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대기업과 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장/직업을 선택할 개연성이 높다. 반면 자신의 관심사에 기초한 전공을 선택한 개인은 자아실현 및 만족에 보다 중시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자신의 흥미에 맞는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혹은 학력주의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사회에서 전공을 선택한 개인들은 노동시장에서 학력/학벌에 의해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바, 이들은 중심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주변부에 머무를 가능성도 높다.

본 연구진은 이상의 문제의식을 검증하기 위해서 첫 직장/직업의 질적 특성을 반영한 경쟁 위험모형(competing risk model) 분석을 진행한다. 즉, 첫 취업의 여부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에 근거하여 대졸자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보다 엄밀한 정보를 제공한다.

〈표 5〉 대졸자 첫 취업에 대한 콕스회귀분석결과(Cox-regression)

| 변수 | | 수능점수 비포함모형(n=916) | | 수능점수 포함모형(n=587) | |
|-------|---------------|----------------------------------------------|-------|----------------------------------------------|-------|
| | | Haz. Ration | S.E | Haz. Ration | S.E |
| 선택 | 대학지향선택(ref) | | | | |
| | _전공_취업비유리 | 0.977 | 0.089 | 0.948 | 0.109 |
| | _전공_취업유리 | 1.247 | 0.150 | 1.231 | 0.206 |
| | _동시고려선택 | 0.936 | 0.094 | 0.953 | 0.120 |
| 인구배경 | 성별 | 1.000 | 0.083 | 0.917 | 0.092 |
| | 부모학력 | 1.010 | 0.026 | 1.099* | 0.046 |
| | 가구소득 | 1.024 | 0.036 | 0.997 | 0.053 |
| 취업노력 | 해외/어학연수 | 1.090 | 0.117 | 1.078 | 0.130 |
| | 영어공부 | 0.976 | 0.091 | 1.005 | 0.132 |
| | 인턴경험 | 1.221** | 0.089 | 1.261* | 0.120 |
| | 학점평균 | 1.013** | 0.004 | 1.014** | 0.005 |
| 대학/전공 | 자격증 | 0.977 | 0.071 | 1.101 | 0.102 |
| | 상위권대학 | 1.035 | 0.082 | 0.964 | 0.104 |
| | 대학전공(base=인문) | | | | |
| | 사회계열 | 1.037 | 0.147 | 1.026 | 0.173 |
| | 교육계열 | 0.903 | 0.174 | 0.846 | 0.189 |
| | 공학계열 | 1.457* | 0.202 | 1.625** | 0.269 |
| | 자연계열 | 1.344 | 0.211 | 1.265 | 0.233 |
| | 의약보건 | 0.962 | 0.224 | 1.191 | 0.352 |
| 수능 | 예체능계열 | 1.264 | 0.205 | 1.365 | 0.265 |
| | 수능점수 | - | - | 1.000 | 0.002 |
| | | LRX ² = 39.42, Prob]chi2 .0025 | | LRX ² = 36.86, Prob]chi2 .0083 | |

*=P<.05, **=P<.01, ***=P<.001

3. 첫 직장 특성 별 경쟁위험모형 분석 결과

1) 첫 직장 특성을 고려한 경쟁위험 모델 결과(전체 표본)

본 연구에서는 첫 취업의 직장특성을 반영하여 비정규직, 중소기업정규직, 대기업정규직이라는 세 가지의 경쟁사건을 종속변수로 활용한다. <표 6>에서는 본 연구대상 전 표본을 활용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첫 번째로 비정규직에 대한 분석결과를 확인해보면, 앞서 첫 취업 이행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던 ‘대학-전공’ 선택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개인보다 자신의 흥미에 기초한 전공을 선택한 개인이 중소기업에 입사할 확률이 약 91%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또한 대학과 전공을 동시에 고려한 경우에도 비정규직 진입확률이 약 63%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구배경차원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비정규직에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전공차원에서는 공학계열 대졸자는 비정규직에 취업확률이 인문계열 졸업자보다 약 60%정도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정규직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본다. 우선 대학-전공 선택은 유의미한 변수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중소기업 정규직에 대해서는 유관변인이 통제되었을 때 해당 선택이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인구배경 차원에서는 역시 성별이 유의미하였으며, 중소기업 정규직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취업확률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전공 차원에서는 상위권 대학의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즉 상위권 대학진학자는 중소기업 정규직에 진입할 확률이 53%정도 낮았다. 마지막으로 전공계열의 결과에서는 인문계열 졸업자들에 대비하여 교육계열 대졸자들은 중소기업 정규직에 진입할 확률이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졸업자들 역시 약 2.18배, 1.72배 정도 중소기업 정규직에 취업할 확률이 높았다. 공학 및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대기업 제조업 이외에도 중소제조업체들의 취업기회가 많은바, 해당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세 번째로 안정적인 취업형태로 고려될 수 있는 정규직 대기업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우선 대학-전공 선택에서 전공을 우선 선택하되 취업불리학과를 선택한 경우 대학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대졸자보다 대기업정규직의 취업확률이 약 50%정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구배경의 차원에서는 성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남성은 여성보다 대기업정규직 입사확률이 2배에 달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정규직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취업노력, 즉 인적자본이 대기업 정규직의 진입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점이다. 우선 해외/어학연수 경험여부는 대기업정규직 진입확률을 1.53배 높였으며, 학점은 만점대비 평점비중이 1% 높아질 때마다 대기업정규직 취업확률은 약 3%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만점대비 학점 비중은 약 80%가 평균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만점에 가까운 학점을 받은 대졸자는 타 졸업자들에 비하여 약 60%정도 높은 대기업 정규직 확률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전공의 차원에서, 우선 상위권대학 졸업자는 비상위권 대학 졸업자보다 약

2배정도 높은 대기업정규직에 취업확률을 지니고 있었다. 다음으로 전공의 차원에서는 인문계열 졸업자 대비 교육계열 졸업자가 약 80%정도 낮은 취업확률을 지니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대기업정규직에 대해서는 문과에 대비한 이공계열의 강세현상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요컨대, 상기결과들을 정리한다면 우선 취업의 성별격차가 명백히 확인되었다. 즉, 여성은 남성에 대비하여 비정규직이나 혹은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확률이 명백히 높았다. 이는 가구배경, 취업노력, 대학전공 등 여러 유관 차원이 통제된 경우에도 확인된 결과라는 점에서 여성은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 자신의 취업노력, 혹은 대학선택 전략, 더 나아가서는 가구의 지원 전략이라는 개인적 노력이 통용되지 않는 구조적인 차별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정규직 대기업에 대해서는 개인의 노력, 즉 인적자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점이다. 우선, 대기업 정규직에 대해서는 교육계열만이 유의미한 가운데 학점은 Weiss(1995)의 지적처럼 취업 이후 실무에 대한 역할보다는 지원자들의 성실성이나 근면함 등을 평가하는 신호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반면 해외어학연수 역시 대기업정규직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선행연구들은 해외어학연수가 가정배경과 높은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이는 단순히 노력의 인적자본이 아닌 가구배경이 지지된(supported) 노력이라는 점에서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간접적인 가구배경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기재는 안 되었지만 대기업정규직 취업에 대해서 가구소득은 p.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었다. 이는 가구의 자원(resource)이 대졸자의 보다 안정적인 지지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로 보인다(변금선, 2014).

전공계열의 결과도 흥미로운 데, 대기업 정규직에 있어서는 이공계의 강세현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대기업의 높은 이공계 편중현상이 4년제 대졸자에게서는 다소 다른 맥락으로 작동함으로 보여준다. 즉 일반적으로 대기업 취업의 많은 비중이 이공계열 학생들에게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대상인 4년제 고학력 대졸자들은 단순 제조업무보다는 본사 중심의 경영일선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공계열 대졸자들 역시 엔지니어링이나 연구업무에 종사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공계열의 취업강세 현상은 취업 자체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상대적으로 좋은 취업으로 인정받는 대기업 정규직에 대해서는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이었던 대학-전공 선택의 효과를 정리해본다. 분석결과에서는 약 6~8년 전에 지냈던 대학-전공 선택이 여러 유관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도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흥미롭다. 즉 학력주의가 강한 한국사회에서 동일 수능점수 기준으로는 자신이 '하고싶은 일'을 택한 전공우선 취업불리 선택집단 학생들은 비정규직 취업확률이 약 2배에 달하였으나, 대학의 상대적 위계를 강조한 대학지향 선택을 한 학생들은 대기업 정규직의 진입확률이 .5배 정도 높게 확인되었다.

〈표 6〉 첫 직장 특성을 고려한 경쟁위험 모델 결과(n=916)

| 변수 | | Sub Hazard ratio | | | | | |
|---------------|---------------|------------------|------|----------|------|-----------|------|
| | | 비정규직 | | 정규직/중소기업 | | 정규직/대기업 | |
| | | SHR | se | SHR | se | SHR | se |
| 선택 | 대학지향선택(ref) | | | | | | |
| | _전공(취업불리) | 1.91*** | 0.44 | 1.20 | 0.19 | 0.54*** | 0.09 |
| | _전공(취업유리) | 0.90 | 0.33 | 1.23 | 0.25 | 0.93 | 0.18 |
| | _동시고려선택 | 1.63* | 0.40 | 1.00 | 0.17 | 0.80 | 0.14 |
| 인구 배경 | 성별 | 0.58*** | 0.10 | 0.60*** | 0.08 | 1.97*** | 0.34 |
| | 부모학력 | 0.94 | 0.05 | 1.06 | 0.04 | 1.05 | 0.05 |
| | 가구소득 | 0.90 | 0.08 | 0.96 | 0.06 | 1.11 | 0.07 |
| 취업 노력 | 해외/어학연수 | 1.33 | 0.31 | 0.69 | 0.14 | 1.53* | 0.27 |
| | 영어공부 | 0.69 | 0.14 | 0.90 | 0.12 | 1.40 | 0.31 |
| | 인턴경험 | 1.03 | 0.17 | 1.06 | 0.13 | 1.16 | 0.15 |
| | 학점평점 | 0.99 | 0.01 | 1.00 | 0.01 | 1.03*** | 0.01 |
| | 자격증 | 1.09 | 0.19 | 0.8 | 0.10 | 1.05 | 0.14 |
| 대학 전공 | 상위권대학 | 1.09 | 0.19 | 0.47*** | 0.07 | 2.02*** | 0.27 |
| | 대학전공(base=인문) | | | | | | |
| | 사회계열 | 1.02 | 0.31 | 1.40 | 0.37 | 0.76 | 0.19 |
| | 교육계열 | 1.18 | 0.42 | 2.02* | 0.60 | 0.19*** | 0.12 |
| | 공학계열 | 0.40** | 0.13 | 2.18*** | 0.56 | 1.32 | 0.31 |
| | 자연계열 | 1.04 | 0.33 | 1.72* | 0.48 | 1.04 | 0.30 |
| | 의약/보건 | 0.54 | 0.31 | 1.09 | 0.44 | 1.77 | 0.62 |
| | 예체능계열 | 1.24 | 0.39 | 1.38 | 0.40 | 0.68 | 0.25 |
| Wald Chi2 | | 74.98*** | | 78.82*** | | 123.52*** | |
| No. failed | | 164 | | 316 | | 231 | |
| No. competing | | 547 | | 395 | | 480 | |
| No. censored | | 205 | | 205 | | 20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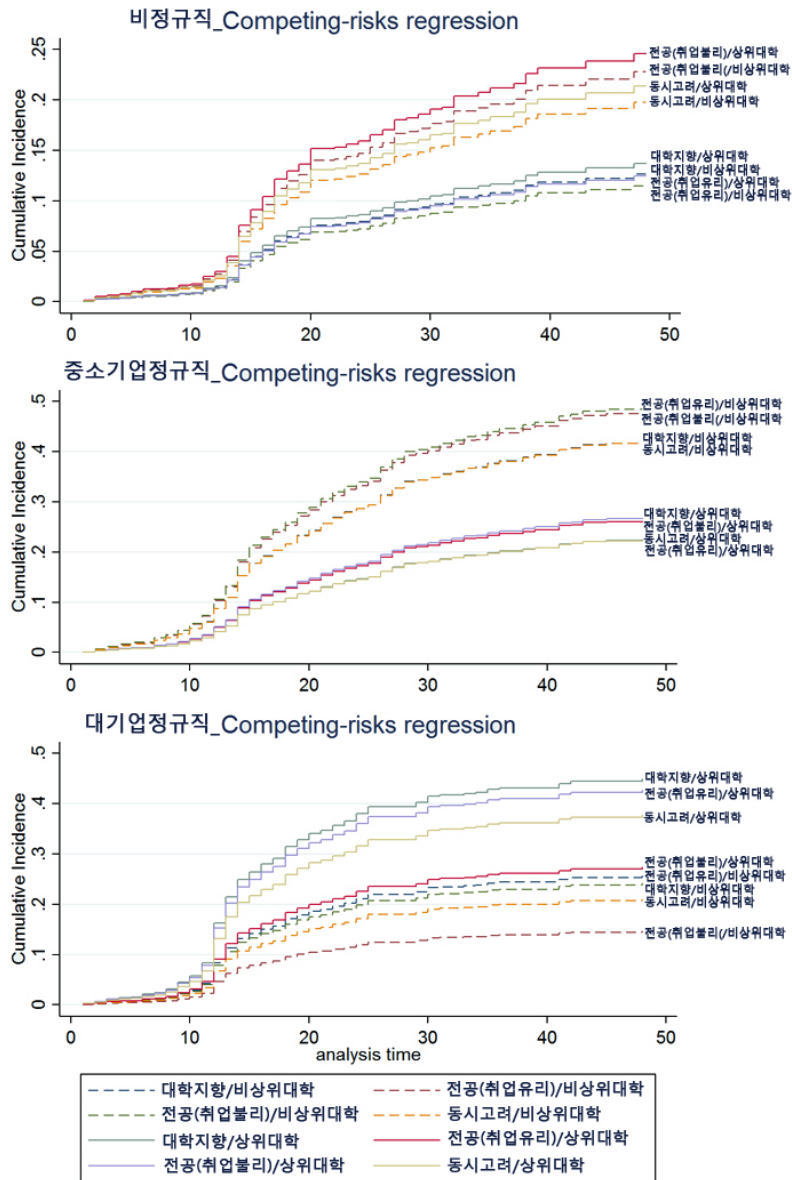
*=P<.05, **=P<.01, ***=P<.001

대학-전공 선택의 효과를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진은 수행된 경쟁위험모형의 결과를 기반으로 실패사건(취업)의 누적발생률(cumulative incidence rate)을 각 취업형태별로 확인해보았다. [그림 1]은 대학-전공 선택과 상위/비상위권 대학의 효과를 조합한 취업 누적발생률의 양상을 보여준다. 해당 결과는 앞서 경쟁위험모형에 근거한 것으로써, 이는 유관변인들이 통제되었을 때 개인들의 대학-전공 선택의 효과가 상위권/비상위권 대학의 구분과 함께 어떠한 변화양상을 가지는지 보여준다.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경쟁위험모형 결과를 살펴보면, 취업준비기간(x축)이 늘어날수록 전공 우선 취업불리 선택 집단이 보다 많이 비정규직에 취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전공 취업불리 선택 집단 내에서 상위권 대학 졸업자가 비정규직에 취업할 확률이 근소하게 높았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는 동시고려 선택 집단의 비정규직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거나, 혹은 전공을 선택했다라도 취업에 유리한 전공에 진학한 대졸자들은 다른 두 선택 집단과 유의미하게 구별되는 낮은 비정규직 누적 취업발생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비정규직의 취업에 있어서는 대학의 효과보다는 개인들의 선택의 효과가 보다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려준다.

다음은 중소기업 정규직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비정규직과 달리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에 대해서는 대학의 효과가 큼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그래프에서는 대학-전공 선택으로 인한 취업 발생률 차이보다는 상위/비상위권 대학 사이의 취업발생률이 명확히 구분됨을 보여준다.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에 있어서는 상위권 대학 졸업자들은 강한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비록 대학효과가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의 양상을 많이 설명해내고 있지만, 동일 대학 내에서는 대학-전공 선택의 상반된 것으로 확인된다. 가령, 비상위권 대학 내에서는 전공우선>동시고려>대학우선 선택 순으로 비정규직 취업발생률이 배치되고 있었다. 그러나 상위권 대학 내에서는 전혀 반대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해당 효과는 근소한 효과이지만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에 있어서는 상위/비상위 대학 내에서의 선택의 메커니즘이 다를 수 있음을 함의한다.

마지막으로는 양질의 취업으로 고려될 수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결과이다. 우선 결과는 상위권 대학과 비상위권 대학의 명백한 구별을 보여주며, 이는 정규직 대기업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대학효과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흥미로운 결과는 상위/비상위 대학 간 효과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서의 선택의 효과도 확연히 발견된다는 점이다. 가령 상위권 대학 내에서 대학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집단은 누적발생률이 약 40%에 달하는 높은 대기업 정규직 취업률을 보여주었으며, 이후 각 선택들이 취업유리전공, 동시고려의 순으로 배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비상위권 대학 내에서도 유사한 패턴, 즉 대학우선>취업유리전공>동시고려>취업불리전공 순의 배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명백히 구별되는 상위/비상위권 대학효과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대학에서 취업불리 전공을 선택한 집단과 비상위권 대학에서 취업유리 전공을 선택한 집단의 취업누적발생률이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점이다. 즉 상위권 대학일지라도 취업에 유리하지 않은 전공을 선택할 시에는 대기업 정규직 취업에 대하여 해당 대학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림 1] 첫 직장 특성을 고려한 경쟁위험 모델 결과(전체 표본)

2) 첫 직장 특성을 고려한 경쟁위험 모델 결과(수능점수 통제모형)

본 연구진은 앞에서 확인된 경쟁위험모형에 대해서 수능점수를 고려한 추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큰 가정인 ‘동일점수에 근거한’ 대학-전공 선택 차이를 보다 정밀히 추정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앞서 시행된 경쟁위험모형에서는 상위권 대학 변수를 통하여 개인들의 수능성적을 대리(proxy)하는 변수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상위권 대학을 활용한 모형은 대학효과를 보다 간명히 추정해내고는 있지만, 개인들의 미세한 수능점수의 차이들을 상위/비상위로만 분류함으로써 개인들의 지니는 대학-전공 선택에 선택편의가 개입될 수 있다는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보다 엄밀한 선택효과의 추정을 위해서 05년의 수능점수를

측정한 원 표본 644명을 추출하여 수능점수의 효과를 모형에 포함시켰다.⁹⁾ 분석에서는 독립 및 통제변인들의 결측치를 제외한 587명이 활용되었다.

<표 7>에서는 수능점수를 고려한 후 진행된 분석결과를 보여주는데, 대체적으로 분석결과는 앞서 상위권 대학을 포함한 전체 표본으로 진행된 분석결과와는 큰 차이가 없었다. 즉 선택의 차원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동시고려 선택의 효과의 유의미성이 사라진 것 빼고는 이전의 분석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인구배경 차원에서는 이전 모형에서 비정규직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성별의 효과가 사라졌는데, 이는 남성으로만 구성된 보정 패널약 300명이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변화로는 정규직 중소기업에 대한 부모학력이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다. 결과는 흥미롭게도 학생의 수능점수가 동일하다면, 부모학력이 높을수록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확률이 14%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업노력의 차원에서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취업에 대하여 해외/어학연수의 효과가 유의미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의 주장과는 해외/어학연수 경험이 비정규직의 취업확률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결과는 표본의 구성확인 및 추후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계열은 몇몇 계열의 통계적 유의미성의 변화가 확인되지만, 효과의 양태는 전반적으로 유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추가된 수능점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수능백분위가 1% 높아지면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정규직의 취업확률이 1%씩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대기업정규직에 대해서는 수능백분위 1%가 상승하면 취업확률은 2%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분석은 수능점수를 통제하지 않고 진행된 이전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분석결과는 이전 모형에서 활용된 상위권 대학의 변수가 수능점수의 효과를 잘 대리(proxy)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즉 몇몇 변수의 유의미성 변화 빼고는 대부분의 변수들의 효과변화는 매우 적었으며, 특히 주요 독립변인인 대학-전공 선택의 효과 역시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앞서 상위권 대학을 통해 진행된 대학-전공의 선택의 효과와 동일한 수능점수를 지닌 대학-전공 선택의 효과가 이질적이지 않으며, 다른 편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물론 표본 특성이 변화했는데 분석결과가 유사한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전모형과 본 모형의 차이가 모집단 자체가 아닌, 군대로 인한 남성표본의 유실을 보완하기 위해 진행된 남성표본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성별효과의 변동 이외는 큰 효과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9) 본 추가분석은 앞서 활용된 첫 취업특성을 고려한 경쟁위험 모형에 대하여 수능점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한 모형이다. 단, 이때 상위권 대학은 분석에서 제외된다. 이는 수능점수와 상위권 대학의 효과가 중복 추정되어 여타 효과들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보다 정밀한 정보를 지니는 수능점수를 앞의 분석에서는 활용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 이는 수능점수가 측정된 표본은 KEEP 2차 조사에서 수능을 치른 원 표본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이며 이로 인해 추가표집 표본 약 300명이 탈락되는 문제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특히 7차 년도에 추가적으로 조사된 표본 757명이 모두 남성표본이었다는 점은 군대 등으로 인해 수능점수를 지닌 원 표본의 성병편향성 및 여러 변수들의 대표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또한 백분위 수능점수는 연속형 변수로서 그 효과를 손쉽게 보여줄 수 없지만, 수능점수의 결과물인 상위권/비상위권 대학은 대학의 효과를 보다 간명하고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본 분석에서는 수능점수가 아닌 상위권 대학여부를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표 7〉 첫 직장 특성을 고려한 경쟁위험 모델 결과(수능점수 통제모형, n=587)

| 차원 | 변수 | Sub Hazard ratio | | | | | |
|---------------|---------------|------------------|------|----------|------|-----------|------|
| | | 비정규직 | | 정규직/중소기업 | | 정규직/대기업 | |
| | | SHR | S.E | SHR | S.E | SHR | S.E |
| 선택 | 대학우선선택(ref) | | | | | | |
| | _전공_취업불리 | 1.78* | 0.49 | 1.14 | 0.22 | 0.57** | 0.12 |
| | _전공_취업유리 | 0.53 | 0.28 | 1.53 | 0.40 | 1.02 | 0.30 |
| | _동시고려선택 | 1.56 | 0.44 | 1.03 | 0.21 | 0.83 | 0.19 |
| 인구 배경 | 성별 | 0.76 | 0.15 | 0.50*** | 0.09 | 1.67** | 0.31 |
| | 부모학력 | 0.90 | 0.08 | 1.14* | 0.07 | 1.16 | 0.09 |
| | 가구소득 | 0.94 | 0.13 | 0.91 | 0.08 | 1.11 | 0.10 |
| 취업 노력 | 해외/어학연수 | 1.69* | 0.41 | 0.59* | 0.13 | 1.55* | 0.32 |
| | 영어공부 | 0.69 | 0.18 | 1.10 | 0.19 | 1.56 | 0.56 |
| | 인턴경험 | 1.11 | 0.23 | 1.17 | 0.18 | 1.02 | 0.18 |
| | 학점평점 | 0.99 | 0.01 | 1.00 | 0.01 | 1.02 | 0.01 |
| | 자격증 | 0.87 | 0.18 | 0.91 | 0.13 | 1.42 | 0.28 |
| 대학 전공 | 상위권대학 | - | - | - | - | - | - |
| | 대학전공(base=인문) | | | | | | |
| | 사회계열 | 1.00 | 0.35 | 1.16 | 0.33 | 0.89 | 0.27 |
| | 교육계열 | 1.47 | 0.58 | 1.84 | 0.63 | 0.21* | 0.14 |
| | 공학계열 | 0.42* | 0.16 | 1.88* | 0.56 | 1.84* | 0.53 |
| | 자연계열 | 0.81 | 0.30 | 1.44 | 0.44 | 1.15 | 0.40 |
| | 의약보건 | 0.57 | 0.41 | 1.04 | 0.51 | 2.24 | 0.99 |
| | 예체능계열 | 1.01 | 0.37 | 1.16 | 0.38 | 1.21 | 0.55 |
| 수능 | 수능점수 | 0.99* | 0.00 | 0.99** | 0.00 | 1.02*** | 0.00 |
| Wald Chi2 | | 59.05*** | | 49.82*** | | 100.08*** | |
| No. failed | | 121 | | 210 | | 138 | |
| No. competing | | 348 | | 259 | | 331 | |
| No. censored | | 118 | | 118 | | 118 | |

*=P<.05, **=P<.01, ***=P<.001

3) O.E.D모형을 통한 ‘대학-전공’ 선택의 효과변화

본 연구는 앞서 O.E.D계층화 모형을 통해 대학-전공 선택이 이론적 위치 및 효과 등을 논의하였는데, 이러한 논의는 “(대입 시) 개인의 일개 선택인 대학-전공 선택(Choice)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편의없는’ 효과를 산출해낼 수 있는가”로 정리될 수 있다. 요컨대, 만약 효과가 발견된다면, 즉 스무살 경 어떤 수능점수를 가지는 학생이 지니는 대학 2~3순위 정도의 선택 차이, 혹은 전공에 대한 선택이 5~10년 후 대학을 졸업한 노동시장 성과를 얼마나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차원과 하위변인들을 통제차원으로 고려하여 경쟁위험모형을 진행하

였다. 그러나 경쟁위험모형에서는 각 차원들의 순차적으로 통제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선택(choice)변수가 가지는 효과가 가구배경이나 대학교육과 어떠한 양상으로 관계 맺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표 8>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배경과 대학교육이 순차적으로 상정된 경쟁위험모형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취업형태 별 이행기간(Destination)에 대해서 대학-전공의 선택만을 고려한 선택(Choice)모형을 통해 개별 선택의 원 효과를 확인한다. 다음으로는 성별, 부모학력, 가구소득의 배경(Origin)차원을 모형에 추가하여 선택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핀다. 마지막으로 인적자본으로서의 취업준비노력 및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대학(Education)차원의 변수를 투입한 후 선택의 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피는 것이다.

Sub Hazard Ratio를 기재한 경쟁위험모형과 달리 본 분석에서는 계수 값의 변화량을 살피기 위해 실제 회귀계수값을 활용하였다. 이를 유의하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비정규직 취업에 대해서는 취업불리 전공 선택과 동시지향 선택이 대학지향 선택보다 비정규직에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이후 배경차원을 통제하였을 때는 선택의 효과가 일률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대학의 차원을 통제하였을 때는 선택의 효과가 보다 유의미했던 해당 두 선택의 효과가 다시 강화되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이는 배경의 차원이 선택이 지녀오는 비정규직 취업의 부적효과는 다소 완화해내지만, 대학교육은 비정규직 취업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정규직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유의미한 결과를 보면 취업불리 전공을 선택은 대학지향 선택보다 정규직 중소기업에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배경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해당 선택변인의 효과가 약 12%정도 감소하였으며, 대학차원을 통제했을 때는 효과가 약 56% 감소되며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명확한 설정은 어렵지만 이중노동시장 구조가 완고한 한국사회에서는 중소기업은 다소 부정적인 취업의 결과로서 해석된다. 따라서 해당 분석결과는 관심사에 기초한 (취업불리)전공 선택은 노동시장 진입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가구배경 자원이나 대학교육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취업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선택모형에서는 취업불리 전공 선택과 동시고려 선택의 경우 대학지향 선택보다 대기업정규직에 취업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반대로 학력주의를 고려한 대학우선 선택이나, 혹은 학과선호 구조를 반영한 취업유리 전공 선택이 대기업 정규직에 보다 취업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후 배경차원과 대학교육을 통제하였을 때는 취업불리 전공 선택의 부적효과는 23%정도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동시고려 선택의 경우에는 대학차원을 통제하였을 때는 효과는 약 절반이 감소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또한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해당 집단이 대학에서 보다 높은 취업노력을 경유하였거나, 혹은 대학과 전공을 균형있게 고려하였기 때문에 대학 진학 이후 타 선택 경우보다 대학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인적자본을 보다 많이 축적하였음을 의미할 수 있다. 요컨대 대학과 전공을 동시에 고려한 집단에게는 대학은 보다 좋은 취업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표 8〉 대학-전공 선택에 대한 배경, 대학교육의 순차적 통제모형

| 변수 | 선택(Choice) | 배경(origin) | | 대학(education) | |
|-----------------|--------------------|--------------------|-------------|--------------------|-------------|
| | coef (se) | coef (se) | 선택효과 증감률 | coef (se) | 선택효과 증감률 |
| 비정규직 | | | | | |
| 대학지향선택(ref) | | | | | |
| _전공우선_취업불리 선택 | .677*** (.202) | .587** (.202) | .867 | .650** (.230) | .960 |
| _전공우선 취업유리 선택 | -.376 (.340) | -.273 (.340) | .726 | -.103 (.365) | .274 |
| _동시고려선택 | .450* (.227) | .435† (.225) | .967 | .488* (.244) | 1.08 |
| 중소기업 정규직 | | | | | |
| 대학지향선택(ref) | | | | | |
| _전공우선_취업불리 선택 | .410** (.138) | .364** (.140) | .888 | .180 (.154) | .439 |
| _전공우선 취업유리 선택 | .197 (.189) | .237 (.190) | 1.20 | .205 (.204) | 1.04 |
| _동시고려선택 | .104 (.161) | .086 (.162) | .827 | -.003 (.170) | .029 |
| 대기업 정규직 | | | | | |
| 대학지향선택(ref) | | | | | |
| _전공우선_취업불리 선택 | -.810*** (.163) | -.754*** (.165) | .931 | -.624*** (.177) | .770 |
| _전공우선 취업유리 선택 | -.070 (.185) | -.148 (.188) | 2.114 | -.068 (.196) | .971 |
| _동시고려선택 | -.426* (.175) | -.402* (.175) | .944 | -.229 (.181) | .538 |

*=P<.05, **=P<.01, ***=P<.001

V. 결론 및 요약

이상, 본 연구는 대입 시 개인들이 지녔던 대학과 전공 사이의 지향의 의미와 효과를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될 수 있는데, 우선 ANOVA분석을 통해서 대입시기 개인들이 보고한 대학-전공 사이의 4가지 선택에 따라 수능점수, 가구배경, 대학/전공, 취업준비 노력 등에서 차이가 감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대입 시기 대학-전공 사이의 선택이 개인들의 여러 제반 상황 및 전략을 반영하는 복합적인 변수임을 함의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각 선택들이 진정으로 본 연구진이 가정하고 있는 예측과 일치하

는지를 살펴보았다. 즉 본 연구진의 문제의식에 기초한다면 동일한 수능점수대를 가진 개인들은 대학-전공 선택에 따라 대학순위나 혹은 취업유리학과 비중의 차이가 존재해야 한다. 가령, 대학우선 선택의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대에서 대학의 서열은 다소 높지만, 전공학과는 다소 인기/경쟁률이 낮은 인문사회나 혹은 순수 자연계열의 학과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전공우선 선택 중, 상경/이공/법학계열의 취업유리학과를 선택한 경우에는 다소 대학 순위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전공우선 선택 중, 취업불리학과를 선택한 경에는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대학위계는 다른 집단들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동시고려 선택집단은 해당 전공과 대학 선택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순위나 취업유리학과의 비중이 중간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각 수능점수대를 기준으로 하여 상위권대학 비중과 취업유리학과 비중을 확인했으며, 특히 수능백분위 90%이상의 응답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대학과 학과정보를 직접 추출하여 본 연구진의 가정을 확인해보았다. 분석결과는 본 연구진의 예측을 지지하였다.

다음으로 첫 직업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이행에 대한 경쟁위험모형(competing risk model)분석을 시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진은 대학-전공 선택의 효과를 보다 엄밀히 추정하기 위하여 가구배경, 대학/전공, 취업준비, 수능점수 등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대학위계 및 선택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우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대학효과보다는 대학-전공 선택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그들이 나온 실제 대학위계에 대한 정보보다 전공에 대한 선택이 비정규직 이행을 보다 잘 설명하고 있었다. 결과에서는 취업불리 전공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비정규직의 이행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대학이나 취업유리 전공을 선택하였을 때는 비정규직 이행의 가능성이 가장 낮았다. 중소기업 정규직에서는 대학의 효과가 명백히 확인되고 있었다. 즉 비상위권 대학졸업자들은 상위권 대학졸업자들에 비해서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이행할 확률이 확연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상위/비상위권 대학 내에서는 편차가 작긴 하지만 비상위권 대학 내에서는 취업유리전공>취업불리전공>동시고려>대학의 순으로 배치되었으며, 상위권 대학내에서는 그 반대의 패턴이 보이고 있었다. 이는 취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규직의 취업에 대해서는 상위/비상위권(서울소재/지방소재) 대학에서 다른 취업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쟁위험모형의 마지막 분석으로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보면, 대학과 선택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일차적으로 대기업 정규직은 상위권 대학 졸업자들이 보다 높은 취업확률을 보이고 있었다. 단 이차적으로 선택의 효과는 “대학>=취업유리전공>동시고려>>취업불리”의 순으로 배치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상기결과들은 대기업 정규직 취업에 있어서는 한국사회의 학력주의와 전공구조가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학-전공 선택의 효과를 보다 엄밀히 추정하고자, O.E.D모형에 근거한 대학-전공 선택 변화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중소기업 정규직과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선택효과에 대해서는 가구배경이 약 10%정도를 설명해내고 있었으며, 대학/취업

준비노력 차원은 약 20~40%정도를 설명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결과들을 통하여 현 한국사회의 학력주의와 특정학과 선호현상은 대학 교육을 택하는 개인들의 선택을 왜곡시키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때의 왜곡이란 (대학)교육의 본원적 목적과 상통하는 것으로서 대학교육이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닌 취업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특히 20살 초반에 선택한 한 등급간의 대학서열, 그리고 전공의 차이가 이후 그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대학이 개인의 평가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학력주의를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 참고문헌 ❖

- 김경근. 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pp.1~27.
- 김기현·오병돈. 2013. 대학 전공 선택 성별 및 가족배경 요인 검증. *교육사회학연구* 23(4), pp.59~84.
- 김동규. 2011. 대졸 청년층의 눈높이가 첫직장 근속기간에 미치는 영향. *고용과 직업연구* 5(2), 23~50.
- 김미란·민주홍. 2011. 대학졸업생의 노동시장 안착과정과 전공별 차이. *직업능력개발연구* 14(1), pp.1~21.
- 김상봉. 2004. *학벌사회*. 한길사.
- 김성식. 2009. 수능성적과 대학진학에 대한 특목고의 효과 분석, 현안보고 OR2009-09, 한국교육개발원.
- 김안국. 2005. 대졸청년층의 노동이동 분석. *한국노동경제논집*. 28(3), pp.39~76.
- 김용성. 2012. 고학력 청년층의 미취업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 일자리 탐색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 34(3), pp.67~94.
- 김준엽·김경희·한송이(2013). 고교유형에 따른 성취도 격차의 양상과 발생요인. *교육평가연구* 26(3), pp.555~557.
- 김정숙. 2009. 대졸자들의 취업준비 활동의 차이 및 직업이행 효과. *교육과학연구* 40(1), pp.141~165.
- 김희삼·이삼호. 2008. 고등교육의 서열과 노동시장의 선별. 제9회 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pp.3~38.
- 김창환·김형식. 2006. 대학졸업자의 전공계열별 직업노동시장 성과. *한국인구학* 29(3).
- 남춘호. 2003. 교육불평등과 노동시장. *지역사회학* 4권 2호, pp.5~43.
- 박거용. 2004.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 역사비평.
- 박성준(2005).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분석”.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보고서 2005-02.
- 박소영·민병철. 2009. 특수목적고 진학 결정요인 분석. *한국교육*, 36(4), pp.29~48.
- 박현준·이자형·김경근. 2015. 대학 전공 선택에 대한 가정배경 및 성장지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5(4), pp.25~51.
- 박환보·김성식. 2011. ‘개인배경, 취업준비노력, 대학서열유형이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1(3): 77~98.
- 박희수·강현철. 2014. 생존분석에서 경쟁위험을 고려한 이탈률 추정 사례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6(4)*. pp.1825~1835.
- 방하남·김기현. 2002. 기회의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 분석. *한국사회학* 36(4), pp.193~222.
- 백병부·김경근. 2007. 학업성취와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구조적 관계. *교육사회학연구*, 17(3). pp.101~129.
- 변금선. 2015. 가구 소득계층에 따른 청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 취업 이행기간 및 임금수준을 중심으로.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제 18권 1호, pp.129~161.
- 변수용·황여정·김경근. 2012. 위세높은 대학진학에서의 외고효과. *교육사회학연구* 제 22권 3호.

- 신동균 · 김미란. 2009. 전공계열별 교육투자의 장기적 노동시장 성과분석.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2(3).
- 손준중. 2004. 교육공간으로서 강남 읽기: 교육정책에 주는 함의. 교육사회학연구 14(3), pp.107~131.
- 손준중. 2006. 교육양극화의 개념, 유형, 동인에 관한 탐색적 논의. 한국교육학연구 12(2).
- 오호영. 2007. 대학서열과 노동시장 성과: 지방대생 임금차별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30(2), pp.87~118쪽.
- 오호영. 2012. 청년층 취업난과 미스매치. 직업과 인력개발 15(1), pp.6~35.
- 오호영. 2015. 대학서열화와 대학교육에 관한 연구. 공학교육연구 18(2), pp.8~13.
- 이경희 · 김태일. 2007. 대학순위와 전공의 임금효과 성별격차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5(3). pp.167~197.
- 이건만. 2007. 한국사회의 학벌주의와 계급갈등: 학벌자본의 이론화를 향해. 교육사회학연구 17(4). pp.63~85.
- 이규용 · 김용현. 2003.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3권 2호, pp.69~94.
- 이동하 · 우석진 · 빈기범 · 안종길. 2014. 경쟁위험모형을 이용한 임금이 보육교사의 이직에 미치는 효과. 재정정책논집. 제 16권 2호
- 이병희. 2011. 청년 고용문제 눈높이 때문인가?, 산업노동연구 제 17권, 1호, pp.71~94.
- 이영민 · 이수영. 2009.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전공계열 진학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교육종합연구 7(2).
- 이영선 · 김정희 · 이영순. 1999. 진로 미결정에 대한 심리적 독립, 애착 및 특성 불안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4(1), 137~161.
- 이왕원. 2014. 중다대응분석(MCA)를 통한 고3시기 불평등의 다차원 맵핑.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7(2), pp.81~117.
- 이정규. 2003. 한국사회의 학력, 학벌 : 근원과 발달. 집문당.
- 이자형 · 연보라. 2012. 전공계열에 따른 대졸자 노동시장 성과의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22(4). pp.199~226.
- 이혜영. 1995. 학력주의와 청소년의 삶. 한국청소년연구 20.
- 임은미 · 박승민 · 엄영숙. 2009.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수준과 전공 만족도, 전공 및 직장선택 기준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16(10).
- 유지선. 2004. 여대생의 진로미결정과 애착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윤수경 · 한유경 · 임소현 · 김화영. 2015. 대학 및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교육 42(2).
- 장상수. 2015. 한국의 교육과 사회이동: 여성과 남성의 차이. 여성연구. 88(1).
- 정이환. 2007. 기업규모인가 고용형태인가 : 노동시장 불평등의 요인분석. 경제와 사회 통권 73: 332~355.
- 조운서. 2013. 대학명성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분석 :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재경경제연구 22(1), pp.185~209.
- 최일수(2012). 대학졸업자의 취업성과 결정 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최을 · 이왕원. 2015. 청년층 취업선호도와 노동시장 진입의 관계. 한국사회학 49(5). pp.1~44.
- 최성욱. 2010. 기능론자의 교육여건 평등론 비판. 교육원리연구 15(2). pp.63~84.

- 채창균 · 김태기. 2009. 대졸 청년층의 취업성과 결정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28(2), pp.89~107.
- 황매향 · 손만익 · 강혜영. 2007. 대학생 대상 진로탐색 교과목 운영의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8(1), pp.71~91쪽,
- 황여정 · 백병부. 2008. 대졸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1(2), pp. 1~23.
- Akerlof, G. 1970,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5: 488~500.
- Arnett,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Becker, G. S. 1975. *Human Capital*.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Becker, G and N. Thomes. 1986. Human capital & Rise &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3). pp.1~39.
- Berger, M. 1988. Predicted Future Earning and Choice of College Major.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 Review* 41(3), pp.418~429.
- Collins, R. 1979. *The Credential Society*. New York: Academic.
- Davies, S. and Guppy, N. 1997. Fields of study, college selectivity, and student inequalities in higher education. *Social Forces*, 75(4), 1417~1438.
- Fiorito, J. and R. Dauffenbach. 1982. Market and Nonmarket Influences on Curriculum Choice by College Student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35(1).
- Green, C. 1992. *After the boom: Management majors in the 1990s*. New York. NY:McGraw-Hill.
- Kiker, F. and M. Zeh. 1998. Relative Income Expectations, Expected Malpractice Premium Costs, and Other Determinants of Physician Specialty Choic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9(2). pp.152~167.
- Leppel, K., Williams, M. L., & Waldauer, C. (2001). The Impact of parental occupation and socioeconomic status on choice of college major.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2(4), 373~394.
- Mortensen, Dale. 1986. "Job Search and Labor Market Analysi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12):15.
- Prentice, Ross., Kalbfleisch, Jack., Peterson, Arthur., Flournoy, N., Farewell, V, T., Breslow, N. E. 1978. "The analysis of failure times in the presence of competing risks." *Biometrics* 34: 541~554.
- Roksa, J. 2005. Double disadvantage or blessing in disguise?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major and employment sector. *Sociology of Education*. 78(July), 207~232.
- Rumberger, R., and Thomas, S. 1993. "The economic returns to college major, quality and performance: A multi-level analysis of recent graduates,"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12: 1~19.
- Sakamoto, Arthur. and Powers Daniel. 1995. "Education and the Dual Labor Market for Japanese 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2): 222~246.
- Spence, M. 1974. *Market Signaling: Information Transfer in Hiring and Related Screening Proces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Taubman, P. and T. Wales. 1973. "Higher education, mental ability, and screen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1), pp.28~55.

- Taubman, P. and T. Wales. 1974. Higher education and earnings: college as an investment and screening device. New York, NY: McGraw-Hill.
- Thurow Lester. 1975. Generating Inequality. New York, NY: Basic Books.
- Weise, A. 1995. Human Capital vs Signalling Selection Bia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8.
- Wilson, F., J. Kickul, and D. Marlino. 2007. Gender,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s: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1(3), 387~406.
- Zunker, V. G.. 2006. Career Services and Counseling in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Career Counseling: A Holistic Approach(7th ed.), CA: Brooks/ Cole.

❖ Abstract ❖

The Effects of College Selectivity and Major Choice on Labor Market Outcomes

Wangwon lee(Korea Univ)

Jieun Choi(Korea Univ)

Yool Choi(Hanyang Univ)

This research studies the effect of choice about ‘college-major’ individuals have in a college admission time. Especially, these researchers focus on the structural effect of vertical credentialism and bias of particular department of Korean society existed on the back side of choice about ‘college and major’. In Korean society ranking structure of college and popular department is unified, a choice between college and major has a reverse relationship with a student having a same grade. At this time, a choice of ‘(unpopular department) college-priority’ is higher than a choice of ‘major-priority’ according to a rank of college. Therefore, individuals can seek structural profit based on ‘credentialism structure’ securing ‘a rank of college’ that is high by one or two classes to maximize their own result. In addition, they can seek profit through ‘department-biased structure’ choosing engineering/commerce that is favorable to entry into the labor market, although a rank of college is low. Meanwhile, some students do not consider the labor market, and choose a major based on their own concern and interest, and other students can consider both college and major. It is important that these choices are an output of complicated interests such as family background, area, and social culture, and are deeply related to essential meaning of college education and individual life in general.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examines theoretical flow of structure meanings such as credentialism and department preference of a choice of college and major, and then verifies how the relevant choice affects entry into the labor market through competing risk model.

